

連記界

第三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目 次

致 辭.....會長 崔 致 煥..... 1

實務面에서 본 韓國速記發展史 (上).....	金 鎮 基.....3
<海外情報>	
美國議會에서의 速記士處遇.....	Hugh scott.....7

第7回 夏季無料講習編輯 部.....11

★ 光復25周年紀念 速記展示會.....12

◇ 漫 畫김 종 수.....14

速記와 女大生과孫 弘 基.....15

● 特別寄稿

外國速記界 視察記 (上).....安 仁 榮.....18

速記國人記 (中)姜 駿 遠.....23

隨 筆 | 模擬國會金 致 元.....27

筆 | 國會에서의 特殊用語.....김 명 식.....28

우리학교의 속기시간.....김 정 애.....30
김 정 숙

<資料> Hansard (1)楊 澈 在.....31

會務日誌.....總 務 部.....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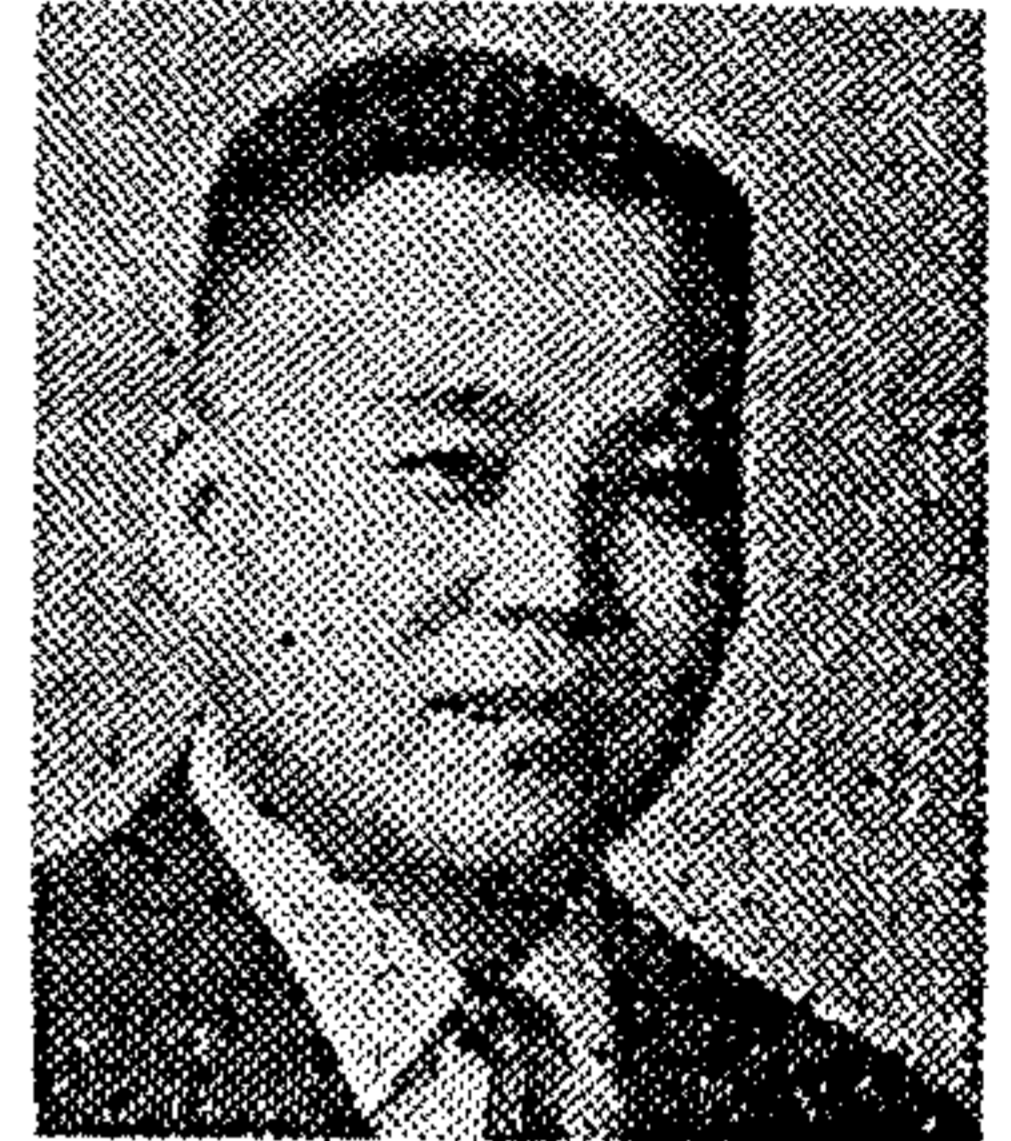
表紙·金 鍾 壽 寫眞·金 善 弼

□ 致 辭 □

理論보다 行動으로

= 第7回 無料講習會 開講式에서 =

會 長 崔 致 煥



친애하는 수강자여러분! 오늘 이 삼복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존경해 마지않는 3.1 독립운동의 애국지사이신 朝鮮日報 副社長 劉鳳榮 선생님을 모시고 第7回 夏季速記無料講習會 개강식을 갖게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지금 이 夏期휴가기간을 이용 「바캉스」나 여행이니 해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 버리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이와같이 속기를 배워보겠다는一念으로 이와같이 6百餘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을 대한 속기협회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여러분의 그와 같은 굳은 결단력에 대해서 뜨거운 존경과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말할것 없이 속기는 발성이 없는 언어로써 어떤 分野에 있어서나 그 관리자에게 큰 무기가 될 것이며, 정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피할수도 없고 안가질수도 없고 또 잊을 수도 없는 하나의 어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회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역시 의장과 의원이 철새없이 발언하고, 국회의 기록을 담당하는 속기사 여러분이 3위가 일치되는 가운데에서 나라의 일이 다루어지고 나라의 정치가 다루어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 기록돼서 소위 Congressional History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치활동에 있어서나 문화활동에 있어서 또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速記가 寄與하는 比重은 크다고 하겠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시절이 있었읍니다.

당시에 저는 젊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읍니다.

첫째로 「에리한 머리로서 사색을 하고 곧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외침을 항상 마음에 새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칸트」의 이 외침을 항상 젊은시절의 좌우명으로서 간직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시절도 있었읍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머리로 사색하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다 더 좋은 내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훌륭하게 모든 문

제점을 착안하고 분석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 행동력있는 젊은이, 행동력있는 사회인, 행동력있는 국민 이런 것이 오늘날 절실히 요청이되는 이시기에 여러분들은 산으로 바다로 그런 「바캉스」를 외면하고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개인으로서도 보람있는 이 길을 택해서 이렇게 오신것을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듭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짧은시일이지만 이 기간동안에 속기를 습득하셔서 속기를 통한 사회에의 공헌이 있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여러분 개인의 모든일이 이룩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의 방법이되어 여러분의 모든일을 매듭짓는데 하나의 추진력이되고 또한 전투력이 되는 요소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國會議員)

(消) (息)

※ 그동안 協會事業의 一環인 學校速記講習計劃에 따라 서울祥明女子高等學校에서 한 學期동안 講義를 擔當해 오던 田興福氏가 事情에 依하여 速記界를 떠나게 되었음은 會員여러분과 같이 섭섭함을 禁할 길이 없다. 田兄이 가는길이 榮光된 길이 기에 우리 모두 앞날을 祝福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協會보다도 더 섭섭해 하던 祥明女高 襄祥明校長은 지난 9月4日 田興福氏에게 感謝狀을 주어 그동안의 희생적인 勞苦를 높히 致賀했다.

感謝狀內容—… 처음으로 학생속기 반을 창설하고 직접 그 기능교육에 임하여 학생들에게 성심성의 그 지도에 헌신적 노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 敝新高等學校 校誌「愛敝」제21號 (70. 7. 23) 6面に

「한종렬 선배님 후배에게 속기지도」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실려있음을 紹介한다.

「本校 特活의 새로운 領域을 開拓하여 스피드時代에 누구나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기술인 速記를 보급시키고자 韓선배님의 열의와 정성이 후배에게 심어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희망자에 의해 방과후 주2회씩 고등학교 70여명에게 속기기 초과정을 가르치고 계신 선배님은 국회 속기를 담당하고 계신 韓鍾烈(44회 졸업) 동문이다……. (후략)

實務面을 통해 본

韓國速記의 發展史 (上)

金 鎮 基

1. 序 論

우리말 速記가 언제부터 이땅에서 싹트느냐 하는 것은 보는 觀點에 따라서 多少 달라진다.

그 創案期를 起點으로 하자면 1909年 「하와이」에서 「신한민보」에 발표된 朴如日氏의 「朝鮮速記法」을 그 효시로 할 수 있겠으나 그 以後 여러 先覺者들에 의한 試圖들이 文字 그대로한날 試圖에 그쳤기 때문에 그 創案된 速記法을 가지고 실제로 實務에 臨할 수 있었던 8.15해방 이후의 實用期를 우리말 速記의 成立期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創案의 진통기가 있었고 다른나라의 興件과 달리 우리는 日帝의 우리文化 抹殺政策의 질곡속에서 우리말 速記法의 創案에 心血을 기울인 先覺者들의 努力을 결코 輕하게 評價할 수는 없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그 創案發表期の 社會的興件과 創案진통기의 말자취를 간단히 훑어보고 成立期에 있어서의 成立過程, 成立以後의 그 普及을 위한 敎育과 實務面에 있어서의 發展過程 그리고 그것이 우리 文化發展에

어떻게 기여를 해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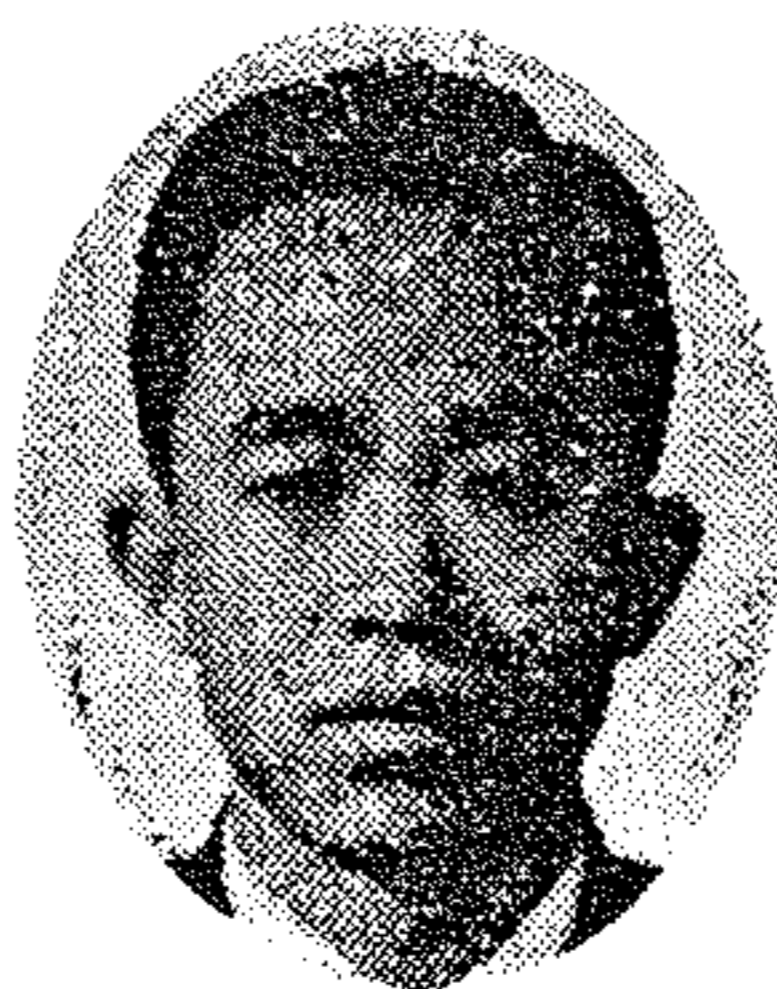
2. 우리말 速記의 創案을 위한 진통기

모든 文化는 그 時代像을 反映한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가 國泰民安할 때에 文化의 꽃이 滿開하기 마련이요. 濟濟多士들이 출현하여 文化各方面에 두드러진 業績들을 남기는 것은 洋의 東西古今을 通하여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速記文化에 있어서 例外일 수는 없고 速記에 대한 必要性 自體가 言語文學의 發達에 따른 보다 신속한 記錄에의 慾求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速記의 起源을 이룬「로

마」時代만 하더라도 「로마」 文明이 한참 隆盛할 때요 Tiro가 速記法式을 考案하게 된 것도 當時의 「로마」에는 雄辯術이 한참 繁盛하던 때라 그 記錄保存의 必要性이 절실했던 탓이요. 그후 미국이나 英國에 있어서의 現代速記法의 發生過程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 速記法의 創案과 發生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日本만 하더라도 日語 速記의 始祖로 받아들여지는 田鎖氏가 速記法을 創案하던 時代는 소위 明治維新으로



日本이 한참 西歐의 新文明을 받아들여 日本이 近代化에 몸부림치던 時代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速記法 創案初期에 있어서의 社會的 與件은 어떠하였던가 한번 考察해 보자.

1909년 처음으로 朴如日氏가 「하와이」에서 「朝鮮速記法」을 創案發表하던 當時로 말하면 바로 그 이듬해인 1910년에 韓日 合邦이 이루어진 때로서 日帝의 마수가 本格的으로 이땅을 휘감던 때이다.

그러나 한편 文化的으로는 우리나라도 海外文明에 눈을 뜨던 開化期였고 우리 文學史에 있어서는 周時經 선생이 처음으로 우리 한글에 대한 現代的인 文法을 마련 發表하신 때이다.

그러나 日帝의 強呑으로 인하여 民族의 受難期가 始作되자 많은 愛國志士들은 海外로 亡命의 길을 떠나게 되었으며 우리의 傳統文化는 뒷전으로 물러앉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抹殺하려는 政策이 나타나게 되었다. 特히 그중에서도 우리말과 글은 유달리 형극의 길을 걷게 되어 數 많은 한글 學者들이 日帝의 迫害를 받으면서 도 끈질기게도 한글사건의 편찬,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제정등의 업적을 남기면서 우리 言文의 명맥을 이어 왔으나 日帝末葉의 殘惡으로 그 명맥조차도 아주 끊어진 뻔

하였다.

이와같이 우리의 言語文字가 受難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말 速記法의 創案을 꾀한다는 것은 사막에 꽃을 피우게 하겠다는 試圖만큼이나 무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與件下에서도 1909년의 朴如日氏에 이어 1923년에는 上海에 亡命中이던 金○○氏에 의한 「날적 말적기」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1925년에는 朝鮮日報 方台煥氏의 勸誘로 日本의 田鎖式을 研究하고 온 方翼煥, 李源祥 兩氏에 의한 速記法의 共同發表가 있었고, 이어 1927년에는 金한터氏의 發表가 있었고 같은 해에 嚴正友氏에 의한 發表가 있었고 1935년에는 姜駿遠氏의 案이 東亞日報 紙上을 통해 發表가 되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러한 試圖들은 試圖自體에 그쳤고 實用段階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것은 創案된 速記法自體들이 實用하기에 未洽한 點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當時의 社會的 與件이 우리말과 우리글 自體의 存立이 위태한 때라 速記가 生成 發展할 수 있는 餘地가 없었다.

當時에 創案發表된 速記法式의 創案者와 그 發表年代 및 原理를 간단히 추려보면 別表와 같다.

創案發表年代表

年 代	創案發表者	發 表 方 法	原 理
1909	朴 如 日	「하와이」에서 「신한민보」	幾何線派이며 點, 直線, 曲線. 線의 長短및 濃淡으로 文字의 變化를 이룸.
1923	金 ○ ○	上海에서 「집도 조 선말본」 第2號附錄.	英國의 「브라이트」 式처럼 水平各小線子音에다 垂直 各線母音을 適用한 符號文字로 構成.

1925	方翼煥 李源祥	時代日報 7月 1.2日字	日本 田鎖式과 같이 한 子音線에 各 方向이 있는 大小楕圓으로 된 母音 을 加했음.
1927	金 翰 廷	「新朝鮮」誌1月 號	한子音에다가 右方向小線 或은 小楕 圓을 加하는 것으로서 그 特色은 記 錄線의 下向性을 막기 위하여 子音 線中 下向에는 小文字뿐이고 大文 字가 없음.
1927	嚴 正 友	「東光」誌 7.8月 號	한글 子音線形에 가까운 各方向曲線 을 子音으로 各方向 大小直線을 母 音으로하여 初聲複用으로 終聲을 쓰 고 있음.
1934	金 勇 虎	東萊高普校友會 誌 2月號	橫書가 아니라 縱書式으로 特異함.
1935	姜 駿 遠	東亞日報紙上 6/18~7/28.	單劃式 楕圓派로 美國의 「그레그」式 과 類似함.

3. 우리말 速記의 成立.

36年동안의 日帝의 壓政에서 벗어난 8.5해방은 우리 民族이 日帝의 쇠사슬에서 벗어났다는 단순한 民族史的 意義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文化史的으로도 커다란 意義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해방이 되자 막혔던 붓물이 터진 것처럼 극도의 混亂이 各方面에 걸쳐 있었던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政治面에 있어서는 無數한 政黨들이 雨後竹荀처럼 생겨났고 文化面에 있어서는 左右翼의 思想的 對立과 더불어 各自 正統임을 부르짖고 「혜계모니」쟁탈전이 벌어지는 群雄割據 百家爭鳴의 時代였다.

이런 속에서 우리 速記界도 「朝鮮速記學會」나 「朝鮮速記文化協會」「朝鮮速記者聯盟」이니 하는 어마 어마한 간판밑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으나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게 된 마당에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

말速記法이라는 것이 한낱 試圖에 그쳤을 뿐 實用段階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도 명맥을 이어오지 못하다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말을 速記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不毛地였기 때문에 우선 實用速記의 考案과 速記士의 養成문제가 당장의 시급한 문제로 「크로즈업」되었기 때문에 他分野에서와 같은 추태는 없었다.

그러면 우리말 速記의 成立과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듬해인 1946年 6月20日 해방以後最初로 逸波式速記法을 서울신문外 몇몇 新聞紙上에 發表하는 同時에 同年 9月 11日에는 東大門區 昌信洞에 「逸波式速記士養成所」라는 養成所를 設立 亦是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本格的인 專門速記士 養成에 着手하였다.

한편 同年 10月12일에는 週刊 「學生新

聞」에 「朝鮮速記者聯盟」의 結成廣告와 아울러 10月19日부터 6日間에 걸쳐 同「學生新聞」에 「朝鮮語速記에 관한 研究」라하여 速記法이 發表되고 그後로 「韓國速記」로 개칭하여 韓國速記專門學館이라는 養成機關을 設立하였다.

이어 同年 12月25日에는 朴鍾浣氏의 「朝鮮速記」라는 著書가 朝鮮教育研究會刊行으로 出版되었다.

1947年 7月에는 朴寅泰氏가 「中央式」이라는 速記法式으로 中央速記學院을 設立하였고.

1948年 9月에는 姜駿遠氏가 「서운 速記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速記專門學館을 安岩洞에 設立하였다.

또 1948年9月에는 金天漢氏가 「高麗式」이라는 이름으로 孝昌洞에 高麗速記學院을 設立하였고 同年 8月에는 李東根氏가 解放速記라는 이름아래 解放速記學院을 乙支路4街에 設立 했다가 후에 「東邦速記」라 개칭하였다.

또 1950年2月3日에는 金世鍾氏가 「世鍾速記法」을 發表 主로 湖南地方의 重要都市에서 養成事業에 盡力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速記法이 새로히 創案發表(姜駿遠氏는 例外)되면서 養成事業에 힘을 기우렸으나 이들 創案者들이 大部分 과거 日帝下에서 日語速記를 배운 분들로서 갑자기 우리말速記의 必要에 의해서 그분들이 배운 日語速記를 中心으로 하여 우리말 속기를 연구하여 急造된 까닭에 速記法 自體의 결함도 많았고 겸하여 速記에 대한 社會的認識이 전혀 없던 때라 1948年3月10日 逸波式速記士養成所에서 9名의 第1期 修了生을 輩出하였으나 1948年6月25日 大韓民國 初代國會인 制憲

國會가 開院되었을 때에는 上記 9人의 修了生中 鄭源道 張憲根 許樹 그리고 筆者 등 네 사람과 姜駿遠氏에게 私師를 받은 朴喜善, 金龍完, 金學憲, 李吉鉉, 金商鎬 徐廷錄 그리고 中央式에서 韓龜永氏와 高麗式 創案者인 金天漢氏 등이 速記長 姜駿遠씨 밑에서 制憲國會의 山積한 建國作業의 記錄을 담당했었다.

이보다 앞서 1946年12月12日에 開院된 南朝鮮過渡立法議院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速記實務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姜駿遠氏以下 6人의 速記士들이 實務에 當했으나 이분들은 大部分이 그전에 日語速記를 習得한 분들로서 해방과 더불어 우리말 速記를 各自研究途中에 있던 까닭에 完全히 體系있는 速記法式의 整理를 보지 못한채 實務에 臨했을 뿐만 아니라 人員의 不足으로 擔當業務遂行에 너무나 無理가 많아서 그中 朴準泰氏같은 분은 過勞로 因해 事務室에서 卒倒하여 끝내 蘇生치 못하는 不幸을 겪었고 執務遂行이 완벽치 못하여 同 過渡立法議院 第106次會議에서는 速記의 存廢문제가 論議되어 한때 速記를 廢止 一般職員으로 하여금 略記를 시키는 사태를 빚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實務發達과정에서 論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速記는 그 배태기에 있어서 日帝의 壓政속에서 싹이 트다가 움츠렸고 해방이후에 비로소 그 誕生을 보게 되었으나, 他分野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등의 준비기간 없이 當장의 필요에 쫓긴 나머지 그 成立期에 있어서도 많은 難關을 극복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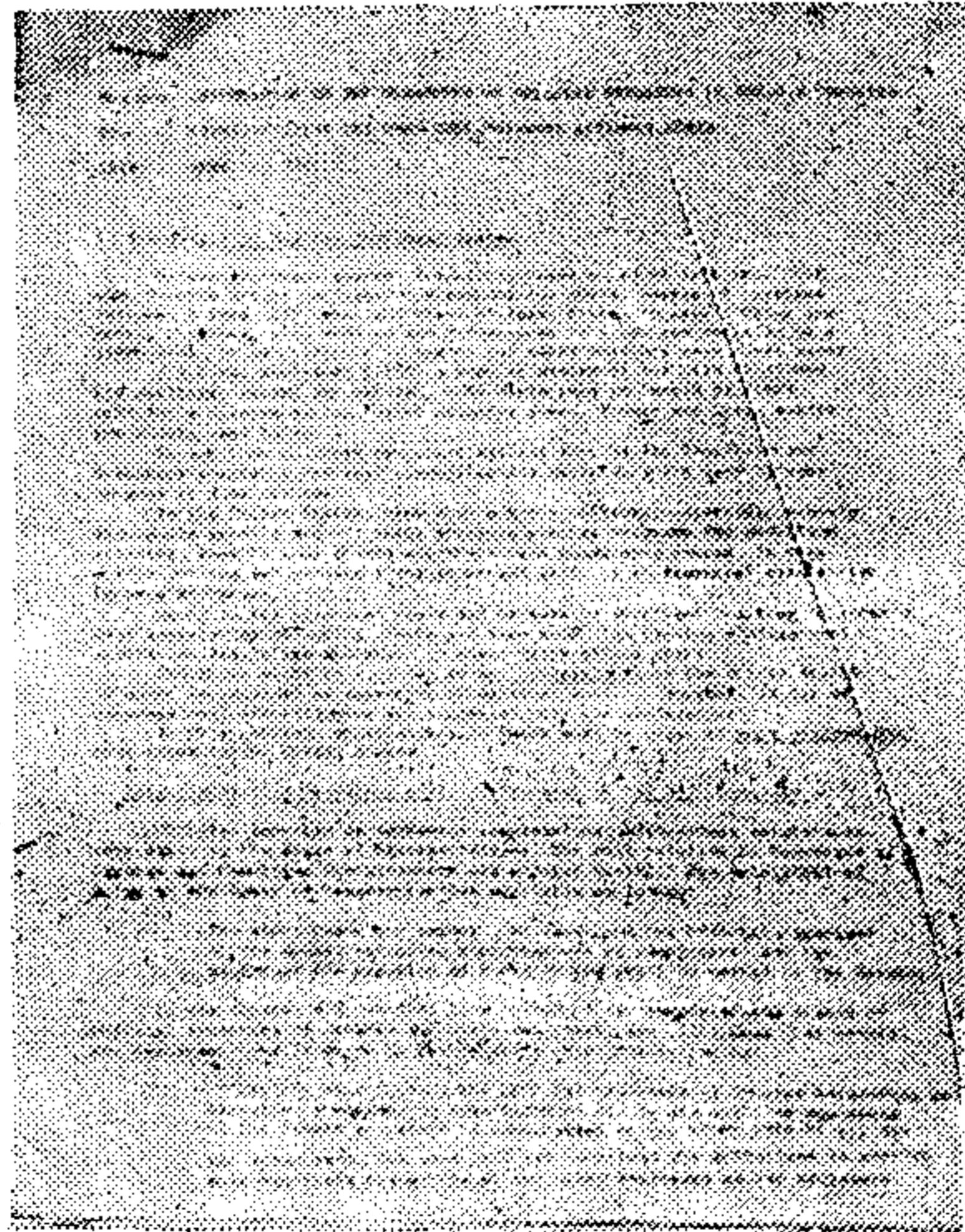
〈國會速記第①係長·國會速記士養成所教務主任〉 (계속)

美國議會에서의 速記士處遇

Hugh Scott
(美上院 共和黨 院內總務)

□ 編輯者 註——이 原稿는 지난 6月 16日 美上院 共和黨院內總務(Senator pennsylvania, G.O.P floor leader) Hugh Scott氏가 崔致煥會長에게 보내 온 書信內容이다.

1. 英語 速記方式의 起源——소리에 依據한 現代 速記方式은 Timothy Bright가 單語에 對한 그의 記號를 創案한 1558년 부터 始作되었다. 그후 1837年까지 즉 Isaac Pitman이 새로운 速記方式을 創案했을 무렵까지 많은 速記方式이 發表된바 있다 斜線과 點의 位置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幾何學的 線을 使用하는 關係上 이 速記는 熟達해 지기까지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一旦 熟達만 되면 받아쓰는 것이 매우 빠르게 된다. 1888년 J.R. Gregg는 實務 速記方式을 發表한바 있다. 그는 線의 長이를 달리 함으로서 또 曲線과 自然線 等을 利用하여 速



記를 더욱 빠르게 向上시켰다. Pitman과 Gregg 방식은 오늘날 널리 使用되고 있다. 이 두가지 이외에 다른 速記方式 即 A.B.C速記 또는 速記打字等도 오늘날 여러 事務室에서 使用되고 있다. 美國에 있어서는 많은 高等學校, 大學, 職業學校 등에서 그들의 학생들에게 速記訓練을 特殊計劃에 依據해서 實施하고 있다. 甚之於 어떤學校에 있어서는 速記는 完全히 必須科目으로 採擇되고 있다. 많은 公共機關이나 個人會社에 있어서도 速記技術은 秘書들에게 必須要件으로 되어 있다. 實際的인 必要성과 또 學校에 있어서는 速記訓練의 結果로 書記는 勿論이지만 많은 高級職員들도 그들의 日課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흔히 速記를 利用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에 있어서는 速記를 專門的이라고 考慮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에 있어서 能力의 限度內

에서 할 수 있는 일로써 考慮되고 있다. 그러나 議會速記士에 關한 限 그것은 專門職으로서 完全히 認定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때 韓國에 있어서의 速記士들은 美國에 있어서의 速記士들보다도 더 專門的인 것으로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2. 美國議會에 있어서의 速記士制度的 採擇——美國議會 特히 下院에 있어서는 速記士를 公式職員으로서 採用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本會議 速記士와 委員會 速記士들에 關한 規則을 1874년에 採擇한 바 있다. 下院의 規則 第34條에는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下院速記士의 任免과 그들의 職務遂行에 關한 것은 議長이 決定한다」

1966年 7月 1日 美國公法 第86—568에 依하여 上院의 速記士 및 關係 職員들의 身分에 對해서 처음으로 規定한 것이 있다.

「上院의 決議에 依해서 現在 또는 앞으로 議會速記士로 任命되는 速記士에 對해서 年間 18,328弗을 支給한다. 이것은 1960年 7月 1日부터 有效하다. 上記 速記士는 會議速記士 또는 복제사等으로 任命될 수 있다.」

兩院의 速記士들은 議會의 進化에 큰 役割을 해 왔다. 議會는 이 速記士에 依해서 그 會議의 記錄을 每日 保全하는 體制를 確立시킬 수 있었다.

議會에 速記士를 두게 됨에 따라서 議會記錄의 修正은 議會의 特權問題가 되게 되었다. 兩院의 速記士가 公式的으로 採用되기 以前까지는 正式職員으로서 速記士가 採用한 일은 없다. 그들은 臨時職員이나 또는 議會와 契約을 맺고 있는 私設

專門速記團體의 職員들이었다.

3. 本會議 速記士 및 委員會速記士——本會議速記士 및 委員會速記士는 專門的인 速記士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所管事項에 依해서 分類될 수 있다.

本會議速記士들은 各各 어느 公開會議를 記錄하고 報告하는 責任을 지고있다. 上院에 關한 一般法 第4章 第126—2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上院事務處에 있는 速記士는 上院의 公式的인 速記士로서 指名된다」

委員會 速記士는 各委員長의 要請에 따라 查問會 또는 秘密會議를 包含하는 各委員會의 議事를 報告한다. 下院의 境遇에는 各委員會의 委員會 速記士가 採用되고 있다. 下院 委員會는 또한 必要에 따라 商業速記團體에 雇用되어 있는 速記士를 臨時的으로 利用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上院에 있어서는 모든 委員會는 商業速記團體에 所屬되어 있는 速記士를 利用한다. 上院委員會 會議를 가지려고 할때 그리고 그 委員長이 報告書作成이 必要하다고 생각할때 委員長은 商業速記團體에 會議場所와 時間을 正確하게 通告한다. 契約에 規定되어 있는 日字까지 이 速記團體는 原本 1부와 寫本 2부를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946년에 議會再組織法 第134條(a) 및 上院관계 一般法 第4章 第190條(b)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小委員會를 포함하는 上院의 各 常任委員會는 會議中 또는 休會中에 그리고 散會中에 查問會 또는 會議를 召集해서 活動할 수 있도록 許用되고 있다.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 證人을 出席시키고 또 관계 文書 圖書 그리고 記錄 등을 作成하도록 許用되고 있다. 그 經費는 議會期間中

10,000弗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각 委員會는 그들의 所管에 속하는 事項에 대하여 調査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記錄을 報告해야 하는데 각 100字當 25「센트」를 超過하지않는 範圍內에서 速記補助를 活用할 수 있다. 이러한 委員會의 所要經費는 委員長의 要請에 의해서 上院豫算으로 부터 支給된다. 이러한 경우 그 經費의 算出基準은 上院의 規則 및 行政委員會에 規定되어 있는 基準에 따라 算出하고 기타관계法에 관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上記 特記한 바와 같이 1956年 6月 27日字의 法에 의하여 賦與된 權限에 따라 1967年 8月 30日 上院規則 및 行政委員會는 1967年 8月 1日付로 效力을 發生하는 改正規則을 承認한바 있다.

그 內容은 上院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에서 作成되는 速記錄의 寫本을 作成하는 費用을 上院의 豫算에서 支拂하여 商業速記團體에 引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上院委員會의 速記錄 作成에 所要되는 經費算出規定은 별첨 1에 表示되어 있다.

4. 速記士의 數

A. 上院

① 本會議速記士—— 上院 本會議에서 일할 公式적으로 任命된 速記士의 數는 모두 9名이다. 이밖에 速記士를 補助하기 위해서 2名の 書記와 6名の 專門的인 整書要員을 두고 있다(上院관계 一般法 第4條 第126—1條 參照)

速記課長……………1名
速記士……………7名
補助速記士………1名
書記……………2名

整書要員……………6名——計 17名

또 上院 事務總長은 契約에 의하여 또는 기타 어떠한 方法에 의해서 必要한 경우 臨時 速記士 또는 整書要員을 採用하도록 承認되고 있다. 거기에 必要한 經費는 議會 豫算에서 나간다(上院關係 一般法 第4條 第126條 b참조).

② 委員會 速記士——상술한 바와 같이 上院에서는 委員會速記士가 採用되지 않고 있다. 각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合同委員會는 商業速記團體에 要請하여 速記士의 支援을 받도록 承認되고 있다.

B. 下院

① 本會議 速記士—— 下院의 本會議 速記士 수는 모두 7名이다. 2名の 서기와 7名の 정서요원도 採用된다.

速記士……………7名
書記……………1名
補助書記……………1名
整書要員……………7名——計 16名

(議會 職員錄 382p 참조)

② 委員會速記士——下院의 職員으로서 正式으로 採用되어 있는 委員會 速記士 수는 모두 8名이다. 이밖에 1名の 서기와 8名の 정서요원이 採用되고 있다.

委員會 速記士……………8名
書記……………1名
整書要員……………8名——計 17名

(議會 職員錄 第 382P 참조)

各 下院委員會 및 小委員會도 또한 必要에 따라 商業速記團體의 速記士를 利用할 수 있다.

5. 速記士의 資格

上院에 있어서 上院 事務總長은 速記士를 採用하도록 권한을 委任받고 있다. 下院에 있어서는 下院速記士의 任免은議長에

게 그 권한이 있다. 그러나 上下院간의 速記士의 資格을 規定한 規則이나 또는 法은 찾아볼 수 없다. 一般的으로 그들은 상당히 오랜동안의 速記經歷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과의 面談을 통해서 그동안 議會에 就職하기 前에 이미 10년 이상의 速記經驗을 가진 것이 發見 되고 있다.

6. 速記士의 處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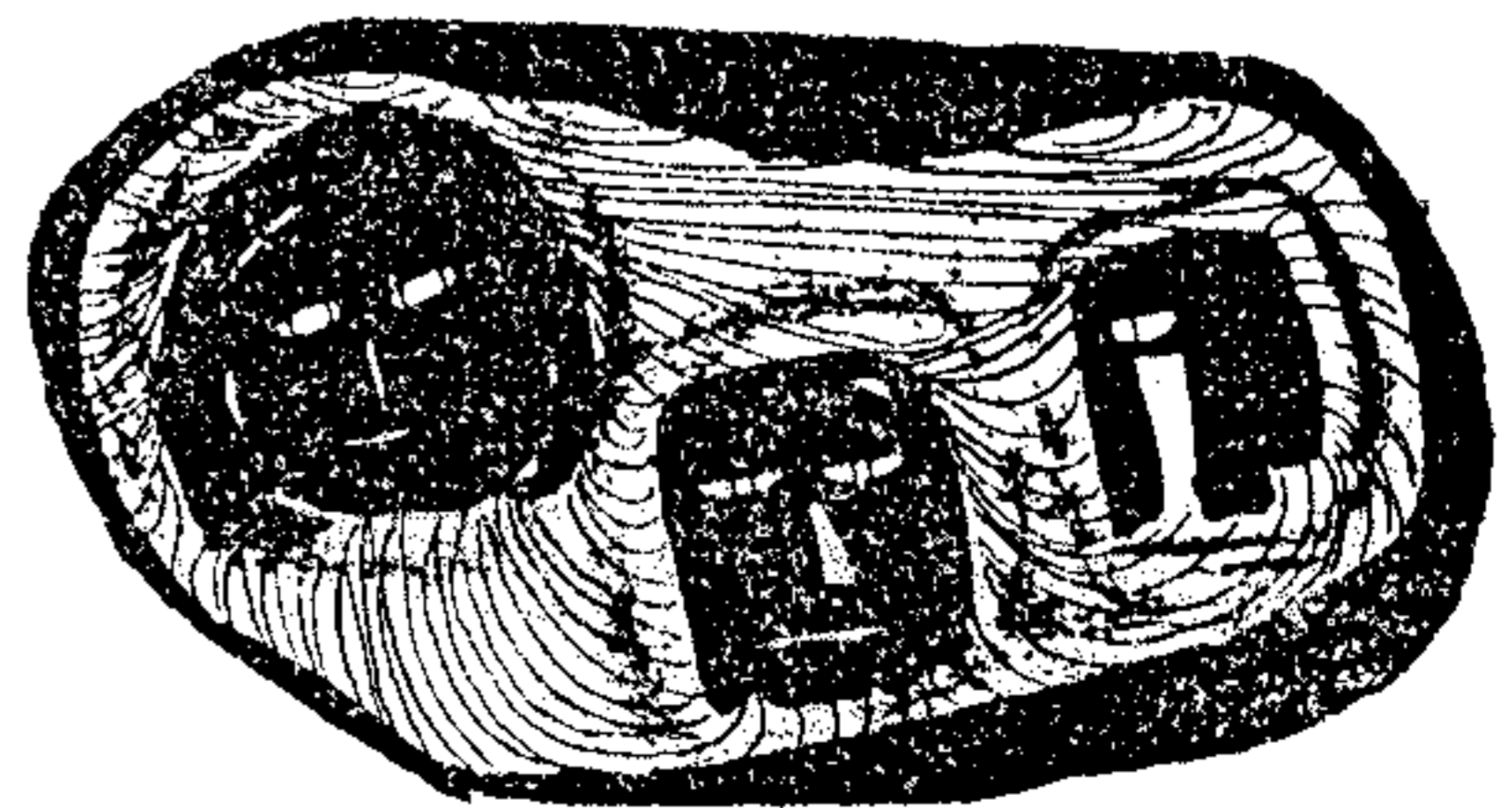
速記士는 美國 議會에 있어서 高額 給與者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다. 速記士의 給與는 一般的으로 오랜 經歷을 가지고 있는 書記職이나 秘書職의 給與보다 높고 고급 專門職에 있는 자들의 給與額과 거의 비슷하다. 그들은 上院 어느 事務室에 있는 行政補佐官들보다도 더 많은 報酬를 받고 있다. 이에 관한 內譯에 對한 理解를 돕기위해서 上院에 있는 要職者의 俸給額을 다음에 表示하였다. (上院 事務總長의 報告書에서 上院要職者들의 俸給額 1969年 7月 1日~1969年 12月31日 半年分)

事務總長	弗17,629 ⁵⁰
書記長	16,315 ⁵⁰
議事官	16,315 ⁵⁰
補助議事官	13,797 ⁰⁰
立法書記	14,125 ⁵⁰
議事錄官	14,125 ⁵⁰
多數黨補佐官	14,454 ⁵⁰
財政書記補佐官	13,140 ⁰⁰
管理官	10,731 ⁰⁰
圖書館長	10,621 ⁰⁰
速記課長	16,315 ⁵⁰
本會議速記士	15,658 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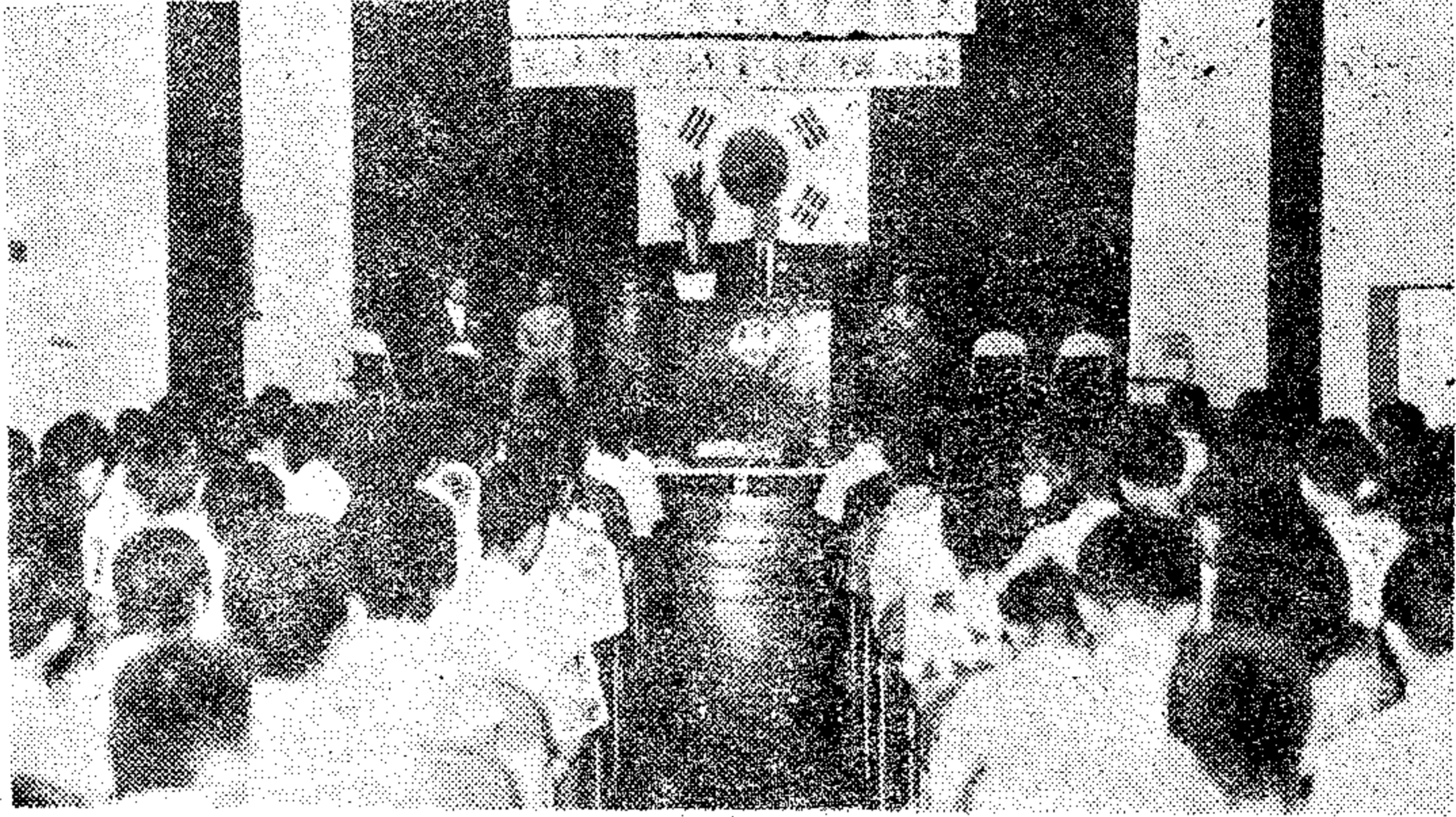
補助速記士	8,869 ⁵⁰
整書要員	7,884 ⁰⁰
與黨院內總務室長	16,315 ⁵⁰
野黨院內總務室長	16,315 ⁵⁰
與黨院內總務室長補佐官	13,359 ⁰⁰
警衛長 및 守衛長	17,629 ⁵⁰
警衛長行政補佐官	13,578 ⁰⁰
郵遞局長	11,935 ⁰⁰
航空委員會專門委員	14,673 ⁰⁰
農林委員會行政室長	10,621 ⁵⁰
農林委員會專門委員	15,658 ⁵⁰
豫算委員會行政室長	15,658 ⁵⁰
豫算委員會專門委員	14,235 ⁰⁰
陸軍委員會專門委員	15,658 ⁵⁰
銀行 및 通貨委員會專門委員	14,016 ⁰⁰
外交委員會專門委員	15,658 ⁵⁰
公共事業委員會專門委員	15,668 ⁵⁰

7. 速記士團體 및 勞組關係

美國內에는 韓國速記士協會와 같은 速記士團體가 없다. 本人이 아는 限 速記士를 위한 勞動組合은 美國內에서 아직 組織되지 않고 있다.



第7回 夏季無料速記 講習會



本協會主催 文化公報部 朝鮮日報 後援으로 열린 第7回 速記無料講習會는 무더운 바캉스 시즌인데도 國語에 446名 英語에 124名 計 570名이 參加하여 8月3일부터 8月22日 까지 3週間 本協會 指定養成기관인 東邦速記學院과 時事英語學院에서 開催되었다.

8月3日 鍾路 YMCA 大講堂에 입추의 餘地없이 자리를 메운 開講式에서 崔致煥會長은 致辭를 통해 「바캉스를 外面한 여러분의 굳은 意志를 높이산다」고 致賀하였으며 內賓祝辭를 통한 朝鮮日報 劉鳳榮 副社長은 「메스·콤에 있어 速記의 寄與度」를 強調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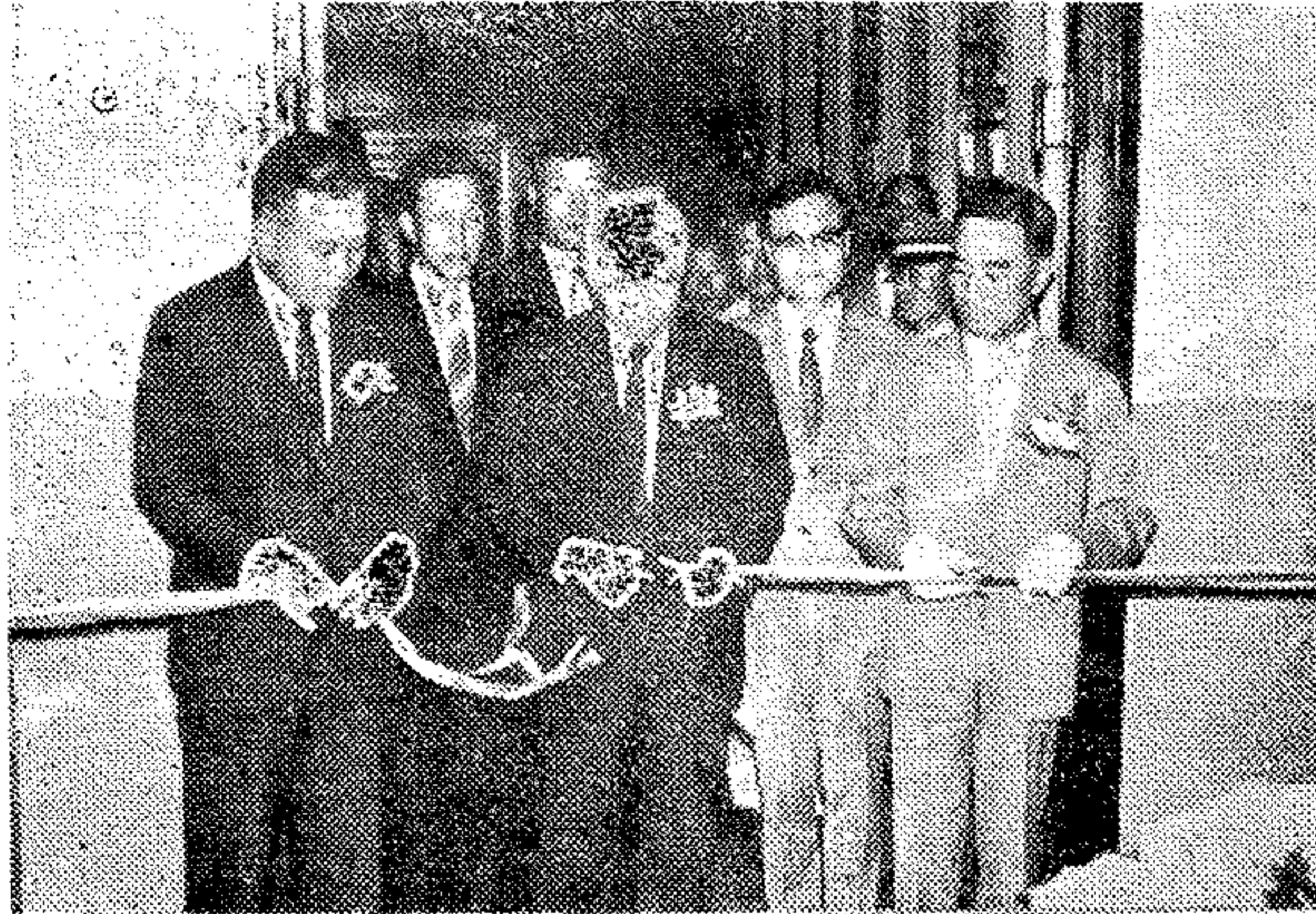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인데도 總570餘名の 受講生들은 短期間의 猛訓練강습에 시종 불꽃 튀는 연습에 熱을 올렸으며 特히 이번 講習에 그 指導를 맡은 李東根先生 李康賢先生 盧英民先生의 희생적인 勞告에 協會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修了人員은 國語速記部門이 217名(49%) 英語速記部門이 88名(71%)으로 國語速記의 경우 例年과 비슷한 成果를 냈으나 今年 처음으로 試圖해본 英語速記는 國語에 비해 좋은 成果를 냈음은 注目할 일이다. 이는 學術面에서 英語速記에 비해 國語速記가 初步에서는 더 어렵다는 것이 講習의 結果 立證되었으며 英語와 國語의 構成上에서 은結果라고 思料된다. 修了生의 人氣 亦是 國語速記에 비해 英語速記가 훨씬 높았음을 附記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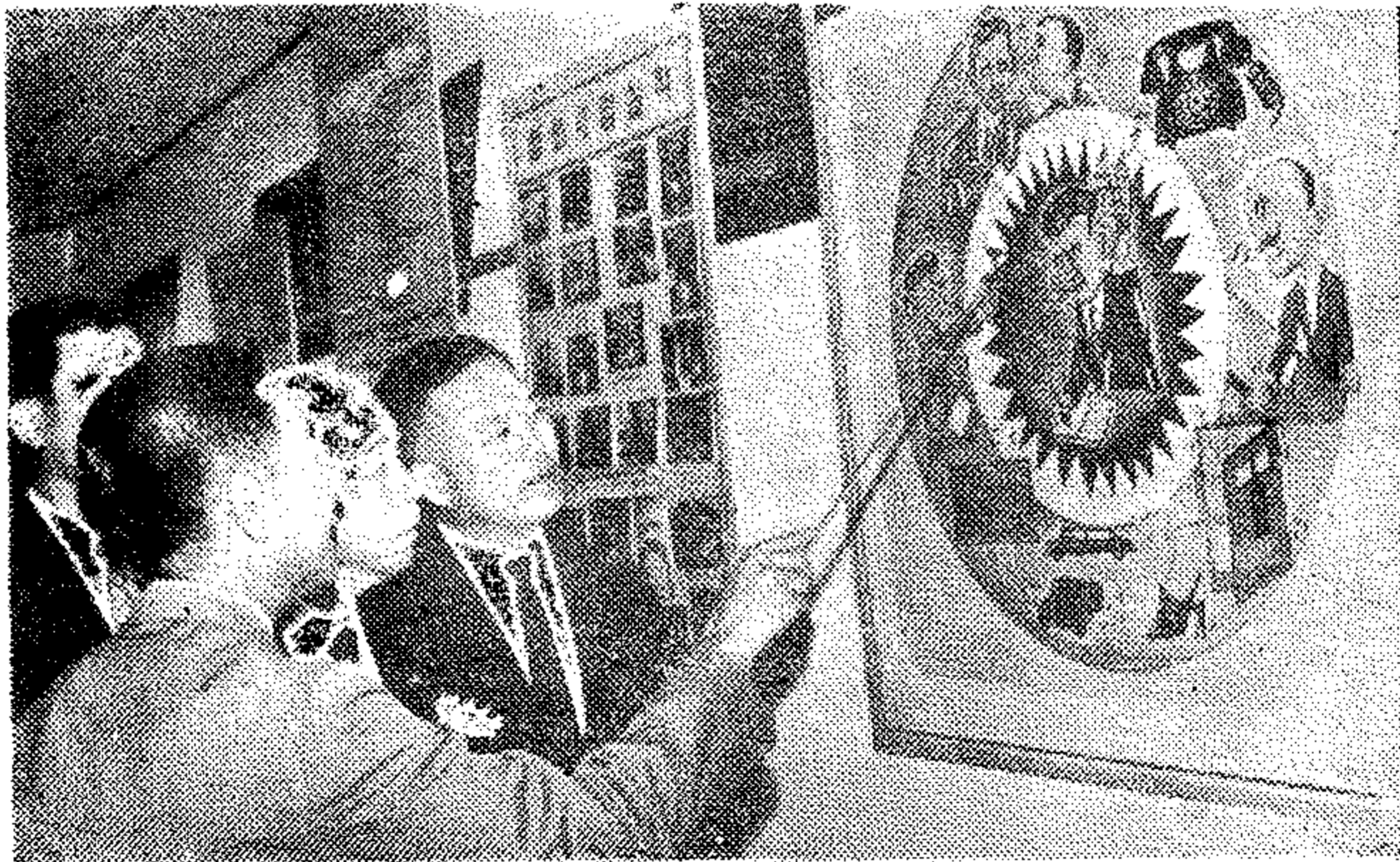
<편집부>

光復 25 周年 紀念

速 記 展 示 會



〈李孝祥國會議長과 本協會崔致煥會長이 테프를 끊고 있다〉



〈李東一 理事長이 李議長에게 說明하고 있다〉

今年度 本協會 重要事業의 하나인 速記 展示會가 光復25周年 紀念이란 벽찬 우리 民族의 얼을 되색이는 슬로건을 내걸고 드디어 지난 9月 7日 午前 10時 國會議員휴게실 復道에서 李孝祥 國會議長과 崔致煥

本協會 會長이 테잎을 끊음으로서 그 幕을 올렸다.

本展示會는 政府의 補助事業임과 동시에 文化公報부와 朝鮮日報社의 積極的인 協助에 依한 事業으로서 總 49點이 展示되

었다.

展示內容을 간단히 紹介하면 ◎ 速記略史(國內·國外) ◎ 速記原理圖(逸波式, 高麗式, 東邦式, 世鍾式, 議會式, 姜駿遠式) ◎ 速記의 基本文字(國內=上同: 國外= Gregg式<美>· Pitman式<英>· 早稻田式<日>· 岩村式<日>· 衆議院式<日>· 參議院式<日>· Duployeet式<佛>· 統一式<獨>· Gregg式<터키>· Aimeparis式<스위스>) ◎ 速記文字에 依한 肖像畫(朴正熙大統領閣下· 李孝祥議長閣下) ◎ 速記教育 進度 ◎ 速記士가 되는 過程 ◎ 한글과 速記文字와의 比較 ◎ 速記의 活用 ◎ 速記略字 및 略法例 ◎ 理想的인 速記席 ◎ 記錄上의 隘路 ◎ 한글의 使用頻度 順位 ◎ 法式別 速記文字 ◎ 速記하기 어려운 경우 ◎ 速記士의 分布와 勤務年數 및 年令對比 ◎ 國會會議錄 作成過程 ◎ 國會會議錄 配付處 ◎ 發言速度(國會議員· 各部長官· 著名人士) ◎ 國會議員의 最長發言時間 ◎ 美國議會의 速記 ◎ 英國議會 速記業務 ◎ 速記文字에 依한 刺繡 ◎ 協會成長의 발자취 ◎ 協會의 事業實績 ◎ 速記士들의 課外活動 ◎ 速記界의 展望 ◎ 70年度 協會 主要事業 概要 기타 35種의 速記補助 器具와 289種의 國內外 速記文獻이 展示되었다.

6個月餘의 끈질긴 資料蒐集과 2個月餘의 製作過程을 通해 이루어진 이 展示會의 成果는 豫想外로 높아 全 國會議員과 全 行政各部長官의 激勵와 讚辭를 받느라 진땀을 뻘 정도였다. 特히 많은 數의 議員들이 展示會內容을 單行本 冊子로 만들라는 勸誘에 까지 이른 이번 展示會는 速記界에 봄이 일어날 정도로 速記에 對한 各界의 새로운 認識이 抬頭되었다. 그 동안 이 展示會를 위해 不徹晝夜 手苦해

주신 準備委員長인 事業部長 申世華氏와 作品製作委員인 金鍾壽氏 金敬萬氏 朴晁植氏 蔡康熙氏 金善弼氏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린다.

特히 速記文字에 依한 肖像畫를 製作한 金鍾壽氏(大統領肖像畫)와 蔡康熙氏(國會議長肖像畫)의 纖細한 作品에 驚嘆의 讚辭가 있었으며 靑貽와 議長公館에서 該 作品의 寄贈을 要求해 왔음을 附記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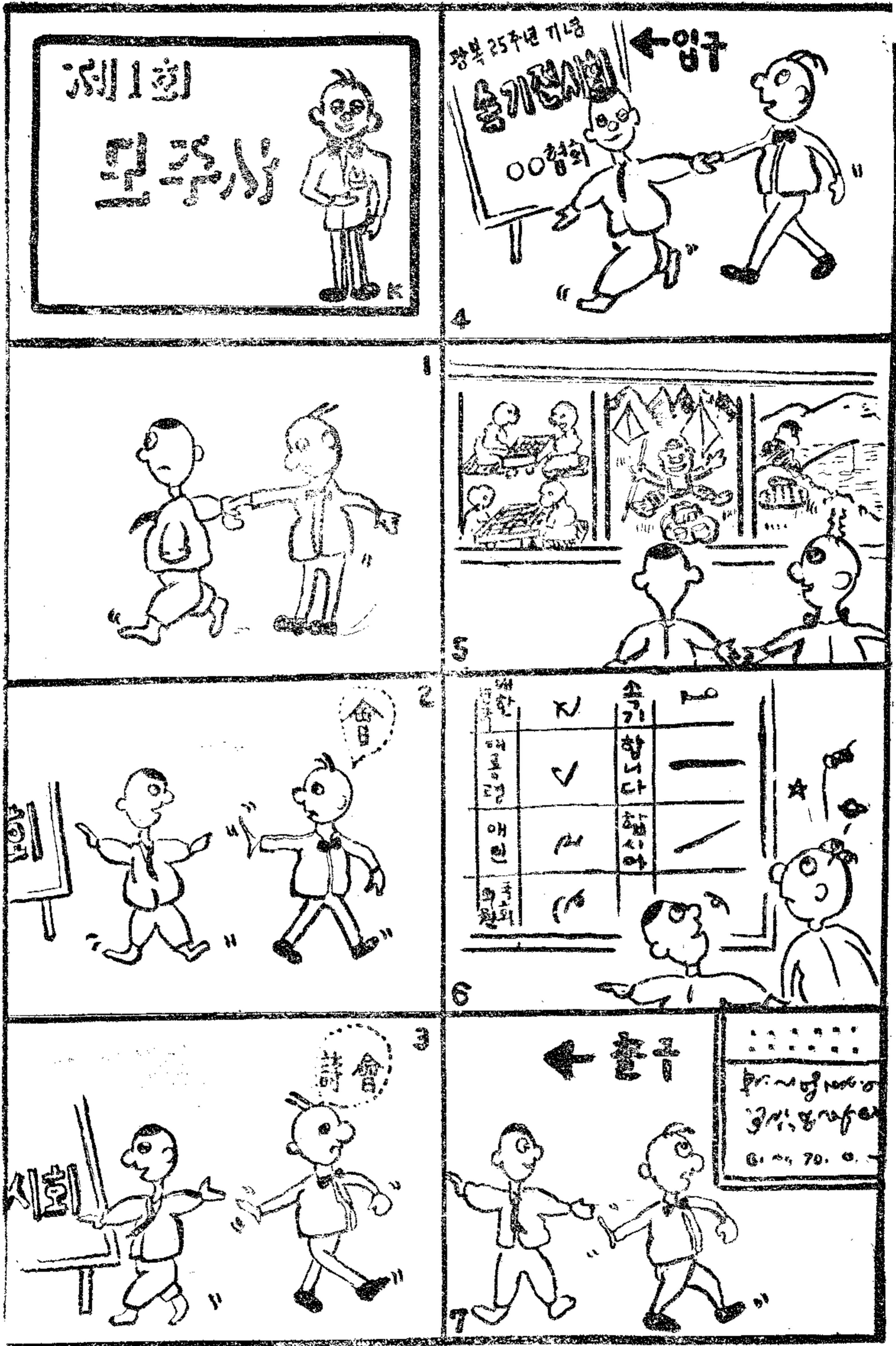
國會 院內 展示會는 9月7일부터 10일까지 華麗한 成果로 盛大히 끝났으며 院外 展示會가 10月 1일부터 3일까지 國立公報館에서 열릴 豫定이다.

院內展示會의 總參觀者數는 國會議員 國務委員 言論系人士 國會事務處職員 등 連 人員 1141名으로서 이中에는 李孝祥國會議長을 비롯한 國會議員은 勿論 丁一權國務總理 崔圭夏外務部長官 朴璟遠內務部長官 丁來赫國防部長官 徐一教總務處長官 申範植文化公報部長官 金永善統一院長官 李炳玉無任所長官 吉在號無任所長官 劉敏相法制處長 裴泳鎬國會事務總長 權景植國會事務次長 등 많은 有名人士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展示會의 內容은 다음 速記界 第4號에 特輯으로 실을 豫定이다.

〈편집부〉





速記와 女大生과

孫 弘 基

수년전 다방에서 싸구려 관상쟁이가 원치도 않는 관상을 보아주면서 하는 말이 직업이 선생이 아니냐고 했다.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직업을 잘 못 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분명 팔자에 없다고 생각한 여자대학의 훈장노릇을 해온지도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벌써 두번째의 졸업생을 내보내고도 전혀 소기의 목적(속기를 할 수 있는 능력자의 배출)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나의 무능을 탓해야 할는지.

내가 처음에 수도여사대 국문학과 학생들을 앞에 놓고 교단에 섰을 때 막막하던 생각이 지금도 새삼스럽다. 미지의 학문에 대한 호기심에 눈을 초롱이는 수 10명의 여대생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더구나 속기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체험에 의해서 알고있는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속기의 대중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걱정이 앞섰다.

무슨 일이나 그목표가 뚜렷할 때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법인데 내가 처음에 수도사대 당국으로부터 속기교육의 의뢰를 받았을 당시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 목표개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시

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어느날 「선생님! 우리가 속기를 배워서 어디에 씁니까?」 하는 어느 당돌한 학생의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에 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속기사 양성기관이라면 그 피교육자는 속기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육목표는 자명해지는 것이지만, 사범대학 국문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있었서는 그 제일의 목표가 중교등학교 국어과 교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속기교육이 더구나 지원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의 무적으로 받게 되는 속기교육 여기에는 뚜렷한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째 그들 전부에게 원치않는 직업속기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중에는 여류시인 또는 여류소설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속기란 이런 것이다 하는 개념만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 그렇다고 대답을 어풀어물한다는 것은 속기교육 무용론 내지는 무해당론에 빠질 염려가 있고, 궁여지책으로 「현대문명의 특징은 3S라고 한다. 그중에 핵이 되는 Speed화와 속기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속기를 할줄 안다는 것이 Tipe와 더

불어 문화인의 필수요건이 될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선구자다.」운운 했지만 과연 그들이 어느정도 거기에 공명하고 납득을 했는지 의문이었다.

그후로 본말전도지만 내 나름의 뚜렷한 목표설정을 위해 생각한 결과 세가지의 목표를 설정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첫강의시간에 그것을 밝히기로 했다.

첫째 졸업할 때까지 4년동안의 교육에 의해 충분한 소질이 발견되는 사람은 원한다면 전문직속기사로 둘째 일정수준에도 달한 사람은 직업상 또는 생활상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 셋째로 그정도도 못되는 사람은 자기가 쓸줄은 몰라도 남을 가르칠 수는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속기교육자로 이러한 세가지 팔방미인식의 목표를 설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회의 졸업생을 내고도(한회의 졸업생은 중간에서 부터 교육했지만) 첫번째 목표의 달성은 고사하고 둘째번째 목표조차도 달성시키지 못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는 내자신의 力不足도 있지만 1주에 두시간 그것도 년 3.4개월에 걸친 방학과 자의 타의에 의한 휴강등을 빼고 나면 1년에 5.60시간정도의 수업시간을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속기는 결강을해도, 노트나정리하면 되는 이론과목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고 기호를 암기해야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상태이고보니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되었을 때에는 의례히 지난학기 것을 써베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데에 있다. 우리말은 풍부한 어휘로 하여 그 언어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어휘들을 최대한으로 간략한 기호화를 해야 되는 속기에 있어서는 어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호를 익혀야 되므로 그만큼 속기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처음 1학년동안은 굉장한 호기심과 열의를 보이지만 차차 어려워짐에 따라 흥미를 잃게 된다. 이쯤되면 조는 학생이 생기고 잠담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만해요」하는 소리가 합창된다. 원래 여자란 남자보다 다루기 힘든 테리케이트 한 점이 있는데다가 여대생이라는 자부감과 꿈에 부풀어있는 그들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팡! 하고 일갈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끼리 나가서 “그차 괜히 큰소리야”어찌구하면... 설마 그럴리아 없지만 어쩐지 그럴 것 같고 조용히 타이르면 합창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숫제 못들은 척 무시하고 강행하면 제풀에 가라앉고 만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기계가 교단에 서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기술교육이라 하더라도 대화가 있는 곳엔 情의 줄이 통하지 않으면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민감히 캐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기분대로만 움직이다가는 산으로 가야할 것이 바다로가고 말테니 딱한 일이고 때로는 인생을 문학을 또는 정치를 물어오는 데는 훈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된다.

작년에 겪었던 얘기가. 예고도 없이 전원이 도망가기로 유명한 학년을 아침 1.2교시로 배정을 해놓고 보니 과반수가 차려면 2교시인 10시경은 돼야 했다. 그렇

게라도 나오는게 신통하다고 생각한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오고 말하자면 불쾌지수가 높은날이라 20여명되는 학년에 한댓 학생이 와 있었다. 열시가 넘어도 더 올 학생들이 없어 보이자 오늘은 휴강하고 다방에 가서 따끈한 커피나 한잔 사달라는 제의다. 나는 우선 호주머니와 상의한 결과 400여원이 있었다. 나까지 여섯이라 그만하면 되었다 싶어 쾌히 승낙하고 학생들을 다방으로 몰고 갔다. 물론 학생들은 환성을 지르며 즐거워 했고, 덧붙여 하는 말이 교수들이 도무지 낭만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야 대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여기까지는 흐뭇하고 좋았다 그러나 뒤늦게 온 학생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 둘 다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나는 안전부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목장유우를 마시는 학생까지 생겼으니 아찔할 수밖에... 참새떼들처럼 지껄이는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릴 리 없다. 증명을 말기자니 학생들앞에서 창피한 일이고 할 수없이 학생들을 먼저 내보내고 나서 어떻게 할 셈이었는데 내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배짱을 정하고 가자고 일어

서서 카운터로 갔더니 내 눈치를 알아챘는지 몇학생이 물려와서는 이미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게 아닌듯 했지만 못이기는 체하고 물려 나왔기에 위기는 모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뿐이라 어찌다 극장이라도 가게 되면 거의 어김없이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훈장의 처신이 얼마나 어려우랴 여학교 훈장을 오래한 분의 말이 생각난다. 마치 딸 기르는 맛이라는 것이다. 기를 동안은 상냥하고 재롱스러움이 있는데 시집을 보내고 나면 그만인 듯이 졸업을 하고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시기가 이른듯하고 비록 1주일에 두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라 하더라도 4년을 대하고 나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게 마련이라 그들의 앞날이 복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고 속기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그이상의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또한 그들이 쉽게 배워서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속기법의 창안이 절실히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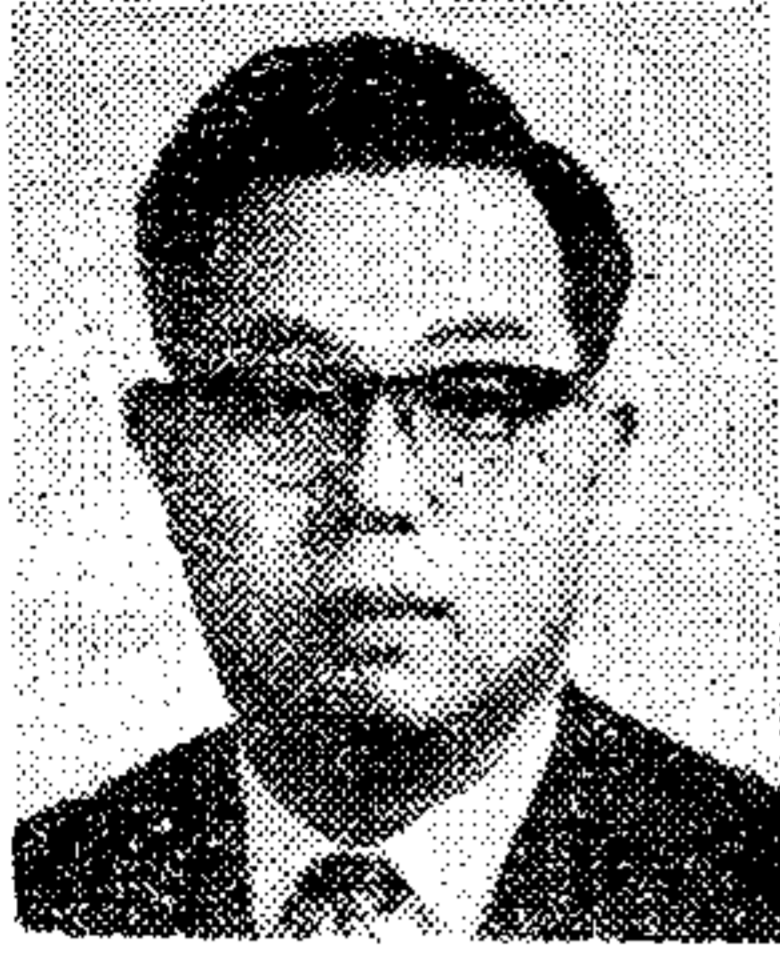
(首都女子師範大學)

速記學講師・國會速記課)

<명 언>

화(禍)와 복(福)은 한데 꼬아는 밧줄과 같다. 복(福)에는 화(禍)가 붙고, 화(禍)에는 복(福)이 달린다. 하나가 하나를 멀리할 수 없이 그 둘은 늘 따라다닌다. <漢書> 행복한 날에는 즐기라. 불행한 일이 있는 날에는 생각하라. 신은 이 두가지를 섞어서 주고 있다

<舊約 傳道書>



外國速記界視察記 (上)

— 日本을 보고 —

安 仁 榮

外國議會制度 視察이라는 恩典을 입어 日本으로 떠난 것은 1970年 6月20日 午後 였다.

많은 同僚와 速記同人들의 過分한 歡送으로 甚찬感激을 이기지못하면서 “트랩을 오른지 約 2時間後 混雜한 國際空港 羽田着 우리를 맞아준 大使館 崔課長의 案内로 日本땅을 밟았다.

그의 好意로 豫約된 호텔 「다가나와」에 旅裝을 풀고 日本議會訪問日程을 물어보았더니 때마침 美日安保條約 延長問題로 左翼系學生들의 反對데모가 한창이므로 議會訪問日程이 늦어지게 되어 23日에나 訪問하게 될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23日까지는 個別로 時間을 보낼수밖에 道理가 없었다.

나의 當初豫定은 日本議會를 視察한 다음 日本의 速記界를 돌아볼 생각이었으나 豫定을 바꾸어 먼저 日本速記協會等 速記界의 實態를 알아보기로 했다.

土曜日과 日曜日の 連休로 連絡이 안되어 22日에 電話로 形便을 물었더니 午後에 訪問해 달라는 것이여서 午後 2時에 日本速記協會로 찾아갔다.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

全國町村會館 二層에 자리잡은 協會事

務室 도아를 당긴 瞬間 많은 사람들의 視線이 나에게 쏟아졌다.

그중 검은 테의 眼鏡을 쓴 中年의 紳士가 다가 오면서 「韓國에서 오신 분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기 바로 協會의 事務局長인 寺井美己氏인데 親切한 案内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紹介해 주었다.

처음에는 事務職員이 이렇게도 많은가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 마침 部長會議가 있어서 거기 參席하러 온 各部長들이었다.

열坪이 채 못될 事務室 한편에는 事務職員의 冊床 세개가 나란히 놓여있고 한 쪽에는 事務局長用인 듯한 큼직한 책상과 會議用 탁자가 놓여 있었다.

이 탁자에서 部長會議를 할모양인데 寺井局長은 會議開始時間을 뒤로 미루고 日本速記界의 實情에 對해 親切히 說明해주는 것이었다.

1968년에 訪問했던 金鎮基氏가 그의 視察報告書에 詳細하고도 多方面으로 紹介하였기 때문에 되도록 重複되는 質問을 避하려고 했지만 그後에 變動된 것이 別로 없다는 것이다.

그의 說明에 依한 日本速記協會의 概況을 살펴보면

社團法人日本速記協會의 前身인 日本速記協會는 1920年 5월에 中央速記會와 東京速記協會가 合併하여 結成되었다. 처음 30餘名으로 結成된 日本速記協會가 2次大戰以後에 急激히 擴張된 速記需要로 말미암아 會員의 增加와 事業의 擴大를 이룩하게 되어 1965年 10月 純粹한 文化團體로서의 社團法人으로 設立變更을 하게 되었다.

現在 日本에는 早稻田式 中根式 衆議院式 參議院式 山根式等等 無慮 70餘種의 法式이 存在하나 社團法人日本速記協會에 加入되어 있는 法式은 30種으로 會員數는 1,180名에 達하고 있다. 既成速記士의 人口가 5,500名에 이른다 하니 아직도 많은 數의 速記士가 協會에 加入하지 않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러나 日本國會인 衆議院과 參議院에 勤務하고 있는 速記關係者들은 全員 協會에 加入하고 있었다.

參考로 會員의 職域別分布를 살펴보면

市町村議會	261名(22%)
速記事務所	153名(13%)
速記教育機關	39名(3%)
新聞報道出版 관계	103名(9%)
其他	146名(12%)
不明	101名(9%)

協會의 機構는 會長 1名 副會長 2名 理事長 1名 副理事長 1名 常務理事 6名(理事長 副理事長包含) 그리고 定款 13條에는 13名以上 17名以內의 理事와 監事 3名을 두게 되어있어 現在는 10名의 理事와 監事 3名이 있는데 이 理事中에는 衆·參兩院에서 各各 1名씩 내고 있다.

그리고 定款 21條의 規定에 依해 6名의 顧問과 參與 若干名이 있다.

協會의 運營은 모두가 理事長中心이며 會長은 定款上 다만 法人의 名譽를 代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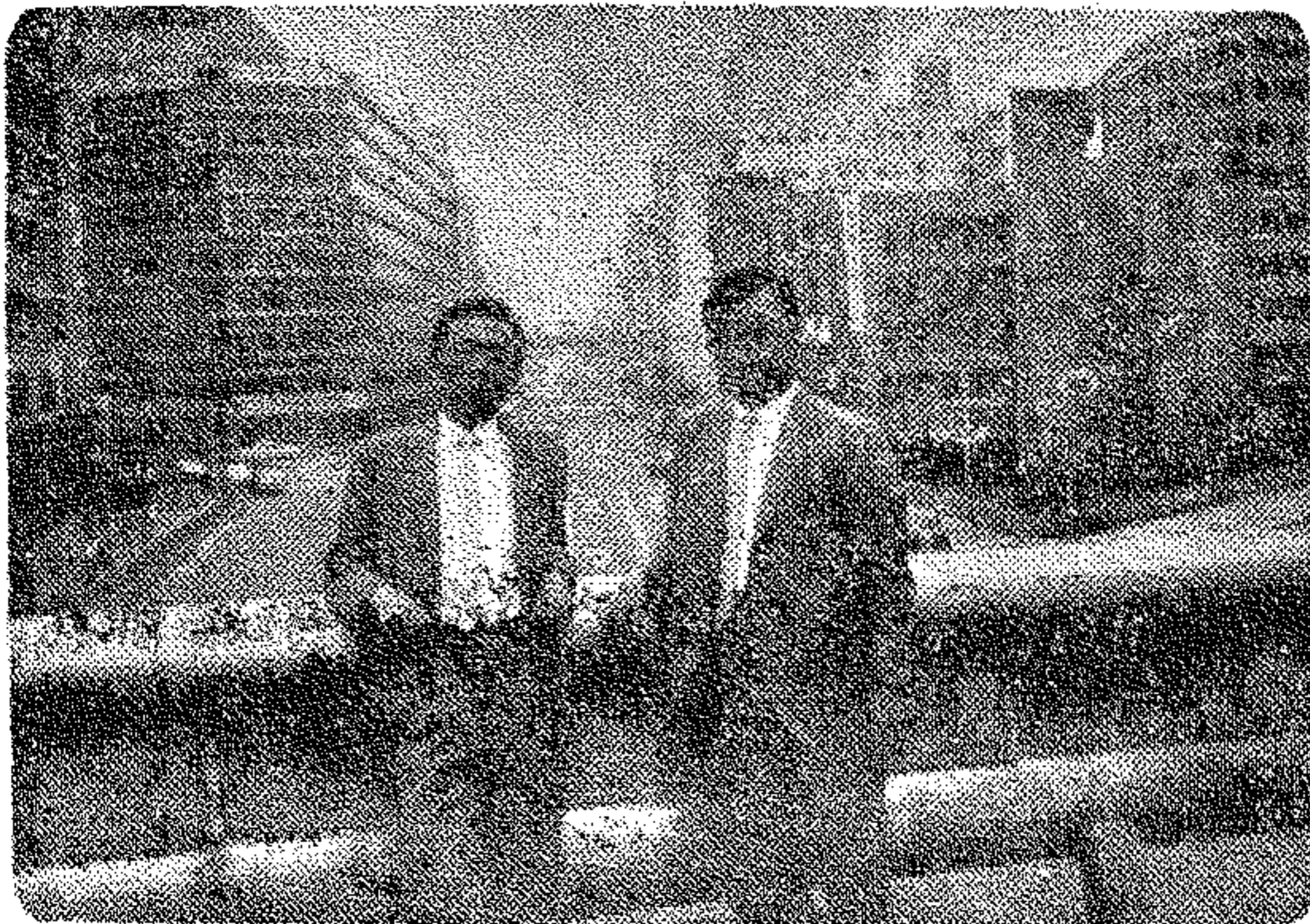
理事長은 通常總會(定期總會)의 議長이 되며 總會의 召集도 理事長名義로 한다.

理事長은 이러한 尠大한 業務處理를 하기 爲하여 事務局長을 任命하고 若干名의 有給職員을 採用한다.

財政面을 보면 會費, 事業收入 其他 手數料收入과 廣告收入 寄附金 등이 있다.

會費는 正會員이 入會費 200圓에 年額 1,600圓을, 特別會員은 入會金 200圓에 年額 3,200圓을 每年 10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 까지의 期間에 納付한다.

純粹한 文化團體인 社團法人日本速記協會는 全國 28個 重要都市에 支部를 設置하여 널리 國民의 書記能力을 增進하고 記錄事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爲해 速記의 普及發達과 利用分野의



國會(衆·參)	294名(25%)
都道府縣議會	83名(7%)

開發에 힘쓰며 兼하여 速記技能者의 技術水準 및 社會的評價의 向上에 供하는 諸事業을 活潑히하여 日本國文化發展에 寄與하고 있는데 그 重要事業을 들어보면,

1. 速記技能檢定試驗實施
2. 議事記錄事務研修會開催
3. 最高競技大會開催
4. 「日本の 速記」 및 速記에 關한 出版物刊行

等이나 그밖에도 速記에 關한 調查研究라든지 速記學習 및 利用에 關한 相談을 하고 있다.

檢定試驗은 文部省認定の 速記技能檢定試驗으로 全國主要都市에서 年4回 實施한다.

이 檢定試驗은 任意團體時代인 1936년부터 1966년까지에 걸쳐 225回開催해왔는데 社團法人이 되면서 文部省認定으로 되

었다.

또 前에는 7段階였던 것을 5級에서 1級까지의 5段階로 하고 文部省이 定한 審査基準에 따른 試驗內容으로 되어 名實相符한 技能檢定試驗이 되었다.

새로운 制度에 依한 檢定試驗은 今年 1月까지 11회를 거쳐 受驗者도 25,000餘名에 達하며 年間 5,000餘名の 應試者로부터 받는 檢定料는 協會收入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檢定料는 級別로 다른데

5級	300원
4級	500원
3級	700원
2級	1,000원
1級	1,200원

이며 速記技能審査基準은 다음과 같다.

速記技能審査基準

程 度	領 域	內 容	許容失點
5級	實技 { 速度 反文 正確度 知識	分速 120字를 基準하여 5分間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 以內에 普通文字로 反文할 程度·反文에 있어서 辭典-參考書를 使用치 않고 96%以上 正確을 期할수 있을 程度.	24字 以內
4級	實技 { 速度 反文 正確度 知識	分速 180字를 基準하여 5分間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 以內에 普通文字로 反文할 程度 反文에 있어서 辭典 參考書를 使用치 않고 97%以上 正確을 期할수있을 程度.	27字 以內
3級	實技 { 速度 反文 正確度 知識	分速 240字를 基準하여 5分間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 以內에 普通文字로 反文할 程度 反文에 있어서 辭典·參考書를 使用치 않고 97%以上 正確을 期할수 있을 程度.	36字 以內

2 級	會議・座談講演의 速記를 補佐할 수 있을 程度.	實技 { 速度 反文 正確度 知識	分速 280字를 基準하여 10分間朗讀한 것을 130分 以內에 普通文字로 反文할 程度 反文에 있어서 辭典・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8%以上 正確을 期할수 있을 程度.	56字 以內
1 級	會議・座談講演을 單獨으로 速記할 수 있을 程度	實技 { 速度 反文 正確度 知識	分速 320字를 基準하여 10分間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 한것을 130分以內에 普通文字로 反文할 程度 反文에 있어서 辭典・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8%以上 正確을 期할수있을 程度.	64字 以內

採點은 「1字失點」을 原則으로 하여 行하여 진다.

誤字・脫字 判讀不明瞭한字 同音異字는 1字 1失點・誤譯은 字數로부터 失點으로 計算한다.

1級合格者는 協會가 發行하는 「速記士證」을 交付하는데 既交付者만도 約 1,400 名에 達한다.

2級合格者는 本人이 申請하면 「准速記士證」을 交付한다.

한가지 特記할 것은 一級資格所持者가 아니면 衆議院에서 實施하는 速記職採用 試驗에 應試할수없다는 것인바 그만큼 檢定試驗의 權威가 認定되는 證據라고 보아 진다.

議事記錄事務研修會는 地方議會의 記錄事務從事者를 對象으로 하여 知識 技能의 向上을 期하기 爲한 事業으로 每年 1회씩 開催하는데 이는 全國都道府縣議會, 全國市議會, 全國町村議會의 3議長會와 四者 共催로 行한다.

여기에서는 各地方議會의 實情이라든지 自己의 經驗談 또한 研究內容의 發表와 討論도 하고 改善策을 論議한다.

그리고 研修會狀況은 研修會記錄이라는 책자로 發刊되어 全國의 會員들에게 配付

된다.

第21回 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會는 1969 年 10月 21日부터 3日間 東京에서 開催되 었는바 여기에 參席한 人員은

- 地方議會關係者 673名
- 其他(新聞社學院等) 16名
- 講師 5名
- 協會의 役員및 會員 48名

으로 合計 742名이니 그 規模의 尨大함을 可히 짐작할수가 있다.

여기에서 研究發表 또는 地方事情發表 를 한 사람들을 記錄으로 보면 大概 20年 以上 速記에 從事한 者들이었다.

특히 「會議錄作成上의 焦點」이라는 題目으로 研究發表한 靜岡縣議會의 白井茂 氏는 速記를 46年間 해온 사람으로 當時 61歲의 高齡者이다.

그가 自己發表에서 「速記란 언제나 어 려운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狀態입니다. 아마도 一生이 걸려도 이것으로 滿足한다 고 할수있는 狀態에는 到達할수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速記가 어렵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今年에는 오는 10月 27日부터 29日까지 3日間に 걸쳐 第22回 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會를 開催할 豫定이라한다.

協會의 事業中 또하나의 重要事業인 最高競技大會는 名人을 決定하는 競技大會로서 全國에서 가장 優秀한 速記士만 參加하는 그야말로 「푸르」級競技가 되는 것이다. 하기가 10分間에 3,600字程度朗讀하는 競技나 「푸로」級이 아니고야 敢히 엄두도 못낼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日本の 速記」는 速記關係의 全國誌로서 月刊이며 會員뿐만이 아니라 速記에 關心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愛讀되고 있다.

이 協會誌는 日本速記協會 設立과 더불어 發刊되어 1969年 新年號로 創刊 400號를 맞았다니 이제 겨우 3號를 發刊하는 우리의 「速記界」와는 격세지감을 禁치못한다.

마침 우리 協會에서 速記展示會를 準備하고 있기때문에 展示會資料를 要請했더

니 展示會開催는 協會의 所管이 아니고 大概 教育機關에서 主催하여 開催한다고 한다.

教育機關은 各法式의 普及協會와 學校가 있는데 普及協會는 主로 通信教育을하며 中·高等學校의 巡廻講習도 하고있다.

그렇게 많은 法式의 教育機關에서 輩出되는 速記者들은 大體 어떻게 수용되는가가 궁금하여 速記의 利用分野를 알아 보았더니 參議院 衆議院 各地方議會 各級裁判所(여기는 手筆速記가 아니고 打字速記임)等に 많은 數의 速記士가 奉職하고 있으며 그밖에 新聞社, 通信社, 放送局, 會社, 其他, 企業體에서 活用하고 있다는 것이니 우리나라도 速記需要의 開發이 切實히 要望된다.

豫測하지 않았던 訪問客때문에 部長會議을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는 事務職員이 몇번이나 寺井局長옆에 와서 서성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좀더 對話하고 싶은 아쉬움을 간직한채 門을 나섰다.

(계속) <國會速記課第3係長>

○ 歷史는 時間의 흐름이 아니고 時間의 記錄이다. 따라서 速記士는 現在와 未來를 連結시키는 교량이다. (會長 崔 致 煥)

○ 國會議長은 議會의 公式的인 눈이며 國會速記士는 議會의 公式的인 귀다. (速記概觀에서)

○ 世上에서 가장 公正한 것은 國王과 國會議長 裁判官 그리고 速記士다. (英國俗言)

速記源圖人記 (中)

姜 駿 遠

◇ 言論은 不自由

아무리 能辯·速口를 자랑하는 演士일 지라도 速記士와 맞서게 되면 그의 言論은 不自由하게 된다. 혹 自己의 發言 內容이 一言一句 빠짐없이 記錄되는 때문에 미리 질리든지 꺼려서 記錄을 拒否하든지 하는 事例는 그 性格과 性癖의 所致겠지만 한편 아무리 넉덕스럽고 뻔뻔한 演述者도 速記士 앞에서는 自由가 없다는 말이니 速記는 憲法을 超越한 무슨 技能이길래 하는 反問이 나올 만도하다.

이 뜻은 速記法으로 完全히 塞인 「記錄의 틀」은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면에서 確實히 그렇고 우리말이라면 반드시 우리말 速記法의 規制에 쫓지 않고서는 말의 驅使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速記的語法과 記錄法의 開發이 잘된 速記法일수록 言論을 물샷틈없이 잡아 넣는 「法書」를 하게 되고 이것이 未到한 法일수록 基本文字의 羅列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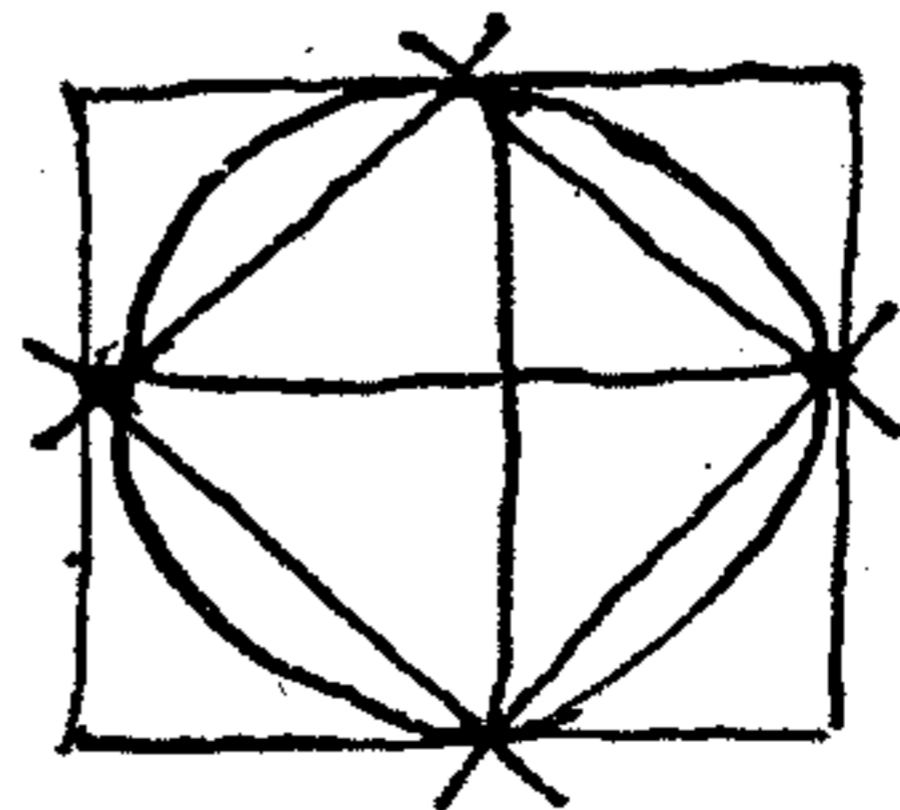
◇ 源圖안 따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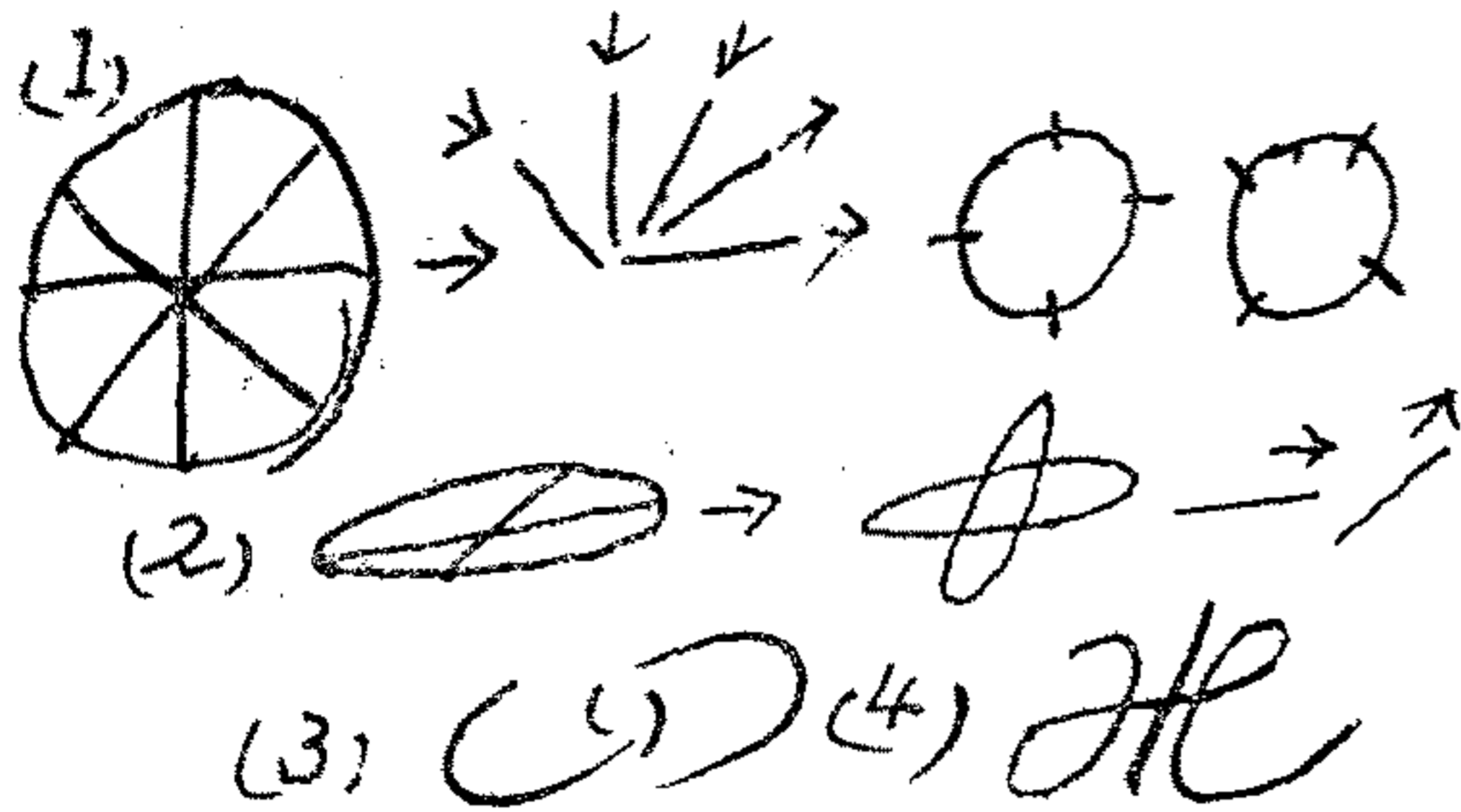
速記文字 分出의 源圖는 ? 하고 물을 時代는 지났다고 하는 說이 있다. ①各個 線狀이 모인것이 源圖냐 ②原生的으로 源圖가 있었고 그것이 풀린것이냐 즉 歸納

的이나 演繹的이나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이 말은 略字로 만들 만하다) 이야기는 그만두자. 成人初學者에게는 源圖부터, 少年初學者에게는 國民學校低學年의 국어독본 式으로 理由不問 우선 읽히고 쓰이는 것이 옳을 것이니 말이다.

人類의 自然文字는 源圖라는 것이 먼저 있었을理 만무하다. 制定 文字인 한글도 그 概念은 類推할수 있어도 이것이 源圖다 하고 提示된 것은 없다. 約40年前頃 한글학회刊 국어중사전의 表紙에 作圖된 것이 한글의 源圖인데 마치 가을하늘에 높이 나르는 鳶과 같은 圖形이다. 이 모양쯤되면 幾何派速記의 源圖와도 비슷해 졌다.

그러면 정말 速記의 源圖도 創案發表때와 그 後 出刊物에서가 반드시 同一하지도 않고 또 同一할 必要도 없는 것이 아





닌가 한다.沿革이 가장 깊은 피트맨式도 創案時와 1966年度版은 上表와 같은 差異가 있다.

즉 幾何正圓으로 說明하기를 避하고 直線을 15° 上向과 60° 下向을 分割한 것이다. 自然運營에 基調를 둔 그래픽式도 1920年版과 版權을 맥크로힐 出版社로 넘겨 그래픽研究圈이 組織된 뒤의 源圖(50年刊)은 달라져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速記各法式의 源圖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남는 셈이다. 全然 따지지 않는式도 나오고 지고 하는 念願이다. 幾何正圓은 누구도 否認 못할 論理上的 非實際的인 死圓이고 눈을 감고도 그렇게 밖에는 記線이 안되는 約35.6個의 直曲線을 이루는 圓形은 大部分의 경우 橢圓인데 이것이 實用線의 알파며 오메가인 生圓으로 感知되는 것이다. 그런데 橢圓의 本質은 動線의 結合인 點이며 天體의 軌道形成도 自轉하는 天體 自體도 손으로 記線하는 運營의 軌道도 橢圓인 것이다. 記線된 文字를 視覺에 느끼는 機關인 눈의 모양 自體도 그 視界도 橫橢圓이니 發達된 高等動物의 進化論的發達인지는 斯界의 學者에게 물을수 밖에 없다. 어떻게 今後는 源圖없는, 눈감고 써지는, 表音形式을 取한 表意 語形을

이루는 速記法이 開發되어야 겠다

◇ 「앗」의 네 發音

表音文字라는 한 概念의 태두리는 極히 애매한 것을 느낀다. 英語의 as ass ash 各語를 한글式으로 옮겨쓰면 모두 「앗」에 그치고 말 것을 傳統的으로 뜻을 느끼면서 그들이 읽으면 「에즈·에

스·에쉬」로 發音하고 뜻도 各各 前置詞 如의 뜻·당나귀·灰로 나타나는데 英語發音 速記의 鼻祖인 피트맨 翁의 直孫이 英國 國會에 英語의 默音不記를 原則으로 한 세 綴字法을 建議하여도 變변히 否決되는 까닭은 곧 言語와 그 文字의 保守性을 如實히 나타낸 것이며 未來의 人類文字로 自他가 豫測하는 速記文字가 辭典의 풀이 그대로 「特殊한 符號로써 語音을 速히 記錄하는…」으로 못박아 버리는 非情의 흐름은 連綿한가 한다.

셋째의 「앗」은 韓國 漫畫家들이 만들어 낸 感嘆詞가 있으니 어린이들의 漫畫冊에 나오는 놀랜 소리 「앗」이다. 우리말 어느 辭典에 이런 感嘆詞가 있으며 漫畫家 自身이 「앗」=「안」이라고 發音하는 가를 實驗해보라고 勸하고 싶어진다. 日本語의 「アツ」을 檢討도 않고 흉내낸 것으로 推測이 되는데 그냥 「아」로서 充分히 滿足한 것이다. 스(시옷)은 그야말로 蛇足이다. 訓民正音頒布當時라면 똥그라미 두개를 접친 子音이 될 것이고 現代로는 더우기 速記에서는 댄 마음 먹지 말고(?) 아에 「아」로 쓰기로 합시다.

◇ 多意語 · 多音語

多意語 · 多音語는 速記士를 괴롭힌다. 英語의 order는 20가지 뜻풀이가 辭典에 나타났고, 日本語에서 生字를 세이, 쇼, 이끼, 기, 아이등 22가지로 읽고 있다고 權威있는 字典은 例 示를 보이고 있다. 우리말 多意語는 △「치다」가 종을치다. 쉼을 치다. 돼지나 닭을 치다 등 45가지 뜻이 있어 넘버원이고 △「타다」는 불에 타다. 부끄러움을 타다 등 22. △「지다」는 싸움에지다. 허기가 지다등 20. △「먹다」는 귀가먹다. 들어먹어야지등 18. △「생각」은 名詞로서만도 16뜻. △「하다」가 21. △「되다」가 16.

多音語로는 우선 우리말에 單音語는 몇안되며 大部分이 2·3 音節語이고, 귀먹어리 수수께끼등 4音節語에서 미나리아재비 등 6音節語는 거의 없어 큰 問題없는데 固有名詞에는 有名한 것들이 있다. △ 러시아人 이름은 父姓·母姓에 洗禮名등 어찌나 긴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려면 그 뒷모습이 아니보일때에야 이름이 끝난다는 풍뜨作品이 있다. △ 70年 5月 19日 新聞 海外 토픽欄에는 美國테트로이드의 洗濯工의 딸의 이름이 한글式 音節로 76字나 되는 긴 이름이 있었다고. △ 清朝의 西太后는 國慶때 마다 吉字를 獻名 받아 덧붙여 나가서 21字로서 正名이 되었던라고. △ 高麗의 벼슬이름에 門下侍郎月內史門下吏章事의 12字가 있었으니 이야말로 大門짜만한 명함이 必要할 지경. 麗末의 鄭夢周는 9가지 벼슬에 50字의 벼슬 이름을 한몸에 지니고 있었다.

速記 이야기라면 多劃字도 舉論(?)이 되어야 했는데 「龍」字 4字가 어울린 漢字

가 世界第一. 64劃」 그 새김에 가로되「용이 가는모양 당」이라고 바쁘지 않던 世上에 어느 造字狂의 處事(?)

◇ 뜻내기 外國語

① 우리 사람이 호떡이만 먹어하지 아니해. 밥이도 잘히 먹어해.

② 유 고 아이 고. 고 맨 고 이즈 맨 이즈.

위는 일부러 만든 말이 아니고 ①은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서 우리말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주로 호떡집 중국인들의 한국어로서 이제는 하나도 우습지 않은 중국식의 한국어로 허용받고 있는 한국어다. 아마 뉴욕에 사는 중국요리집 심부름꾼은 이런式의 英語는 아니할 것이다. 「우리사람이」는 「우리는」으로서 充分히 代名詞가 될것이고 「호떡이만」의 「이」는 無用, 「먹어하지」도 「하」는 無用……副詞 「잘」만으로 充分 「히」는 蛇足등. ②는 소위 美軍部隊의 韓國人 人夫들의 美語. 語順을 바꿀줄 몰라 單語만 우리말式으로 連發한 것으로 「너도 가고 나도 가지」「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여기좀 있지」의 뜻이라고. 韓日合邦이 強行되고 坊坊曲曲에 韓國人 識字階級 古老들이 面長으로 任命되자 「日語自習書」에서 배운 웃(笑)는 다는 動詞와 우습다는 形容詞를 混同하여 「그것 웃는다(소레와라이나)」라고 했다는 實話.

그러나 速記士는 우리말이 目的格이 끼일 경우는 「그는 밥을 먹는다. 밥을 그는 먹는다. 먹는다 그는 밥을…」등 語順이 6體로 됨은 일일이 고려에 넣어 가면서 速記記錄을 할 必要는 없지만 速記反文도 그것이 文學인 以上 소위 6要素는 빠진要

素가 없나를 도리켜 봐야 하겠다. 現在 서울의 몇 大學 新聞學科등에서는 6WIHU 등 6要素를 외는데 別妙案이 없는듯 한데 아래 한 句節을 외어두면 대단히 便益하다는 것을 保證한다.

「主客時場狀理」6字가 그것인데 主體・客體・時間・場所・狀態 理由의 頭6字로서 이것은 筆者가 한국일보 幹部로 있을 때 新入見習 記者및 地方駐在記者가 任命

될때 읽히는「取材・成文要領」草案에 記錄된 6要素體保方法이다.

이를 더 肉感的으로 느끼도록 풀이해 가로되「主客이 시장할 때 술 한상을 받으니 오죽이나 좋으리」로 되어 있다. 술을 생각하면 記事가 써진다는 妙得. (계속)

〈本協會指導委員〉

□ 斷 想 □

X

양 원 용

人生은 꿈을 먹고 사는 未知數이다. 歲月은 江물이다. 人間은 이 江물위에서 고기를 낚는 漁夫다. 누구나 고기를 낚는데 汨沒한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이 있다.

누구는 權勢를 낚았고 누구는 사랑을 낚았다고 하며 누구는 幸福 누구는 富貴... 누구는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다고 不平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체 인간은 이 허무한 江속에서 무엇을 낚았다고 할수 있겠는가. 永久한 고기는 아무데도 없다. 얻은 것도 없으면 잃은 것도 없다. 그래서 人生은 한토막의 꿈이다.

바람이 인다. 바람은 반드시 집뜰안

에서 잔잔하게만 불지 않는다. 나무가 지위에서 양탈하던 잎새는 바람에 거역치 못하고 떨어진다. 새들이 지저귐다.

새들이 만일 그 생명이 얼마나 짧은가를 생각한다면 가지에 앉아 그토록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것이 노래가 아니라 통곡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번민속에서 살기보다 노래하는 새처럼 無智와 超脫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더 賢明치 않을까.

설혹 아무도 그 서투른 노래를 들어주는 者 없더라도.....

模 凝 國 會

金 致 元

모년모월모일 이상국회(理想國會)가 열렸다. 의장께서는 개회사를 읊으셨다.

『……시간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시간의 존귀함을 나타내기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되었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황금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시간이란 우리 생명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시간에는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시간을 황금에다 비교한 것이야말로 「멤 로니즘」적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말은 한갓 표현을 넘어선 철학적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나 시간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약점이라고 하는 비능율을 초래하게 될 뿐이 을시다.

그런고로 우리는 먼저 시간을 꼭꼭 지킵시다. 이 이상국회도 미안하지만 예정 시간보다 30분 지나서 비로소 개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현국회 보다야 이상적으로 시간을 지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묻지 않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엄밀한 시각에 시작을 해야 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이상국회의 수석 분과위원회인 시간엄수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 주지시키고 계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엄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아마도 학교적부터 단

골 지각생이었던 「유유회」의원께서 선출될 예정으로 있어 활동이 크게 기대됩니다. 한테 그 분 아직 이 자리에도 안 나오신 모양입니다. 아! 지금 저 뒷문으로 유유회 걸어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의장의 말씀을 열심히 속기석에서 받아 쓰던 나도 이때 뒷문계를 잠깐 바라보니 예의 유유회씨는 하품을 하며 유유회 몸을 움직인다. 의장의 말씀은 계속된다.

『……원래 교과서와 현실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비웃음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적에 배운 민주정치의 개념을 품은 채 현 정치를 보게 되면 한 마디로 당황할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온상에서 길러진 화초가 햇빛과 바람에 나와보고 놀라는 모양처럼 나도 한 때는 당황했고 내가 철의 심장과 두꺼운 얼굴을 갖지 않았던들 쇼크사를 할 뻔 했었지만, 오히려 철의 심장에다가 탐욕이라는 강심제를 더하고 두꺼운 얼굴에다가 간계의 웃음이라는 화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덕분에 오늘날 의장의 자리에 까지 앉았습니다. ……』

의장의 연설은 계속되었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덧붙일 말은 이 이상국회는 자체모순으로 증발되어버렸다는 것이다.

<國會速記課>

國會에 서의 特殊用語

— 速記錄을 通해 본 —

김 명 식

사람의 얼굴이 각자 다르듯이 個個人마다 音聲은 물론 言語 習慣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家庭을 한 집단으로 얼굴 모습이 類似하듯이 言語習慣 또한 특정한 그룹별로 共通性이 있게 마련이다. 宗教人들 특유의 설교풍의 言辭나 유창한 言辯으로 명료한 이론을 展開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가르치는 教師들이 納得을 시키려는 습관상 말끝에 다짐을 주거나 解說的인 얘기 또 전근대 적인 양반풍의 느리고도 좀 加味된 言辭나 生活苦에 시달리는 빈곤층의 걸치레 없고 다듬어 지지 않은 言辭등 言語는 周圍 環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職業이 같아해도 職場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職場마다 特殊 用語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專門분야에 따라 專門用語가 있지만 專門用語가 아닌 共通的인 言辭를 지적하는 것이다. 國民의 손에 依해서 選出된 國會議員들 그들은 法律家 經濟學者 政治家 醫師등 전직이 같을 수 없지만 하나의 뭉뚱그려진 政治환경 속에서 共通的인 言辭를 찾을 수 있게 된다. 具體的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매우 親熟한 사이다. 尊敬한다. 그것이 那邊에 있느냐. 且置하고라도, 不然이면, 學論한다. 披瀝한다. 民意의 殿堂인 國會다. 國民을 愚弄하고 기만한다. 研究 檢討한다. 民族的 民主主義・自由民主主義等等.

또 四字成句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語不成說, 言語道斷, 去頭裁尾, 國利民福, 百尺竿頭, 厚顏無恥 不恥下問 三尺童子 政治風土 政治道義等等.

극단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良藥而若口나 利於病이요 忠言而逆耳나 利於行이라.

知者千慮必有一失이요 愚者千慮必有一得이라.

春風桃李花開夜 秋雨梧桐葉落時等等.

어려운 文字를 써서 얘기 한다고 해서 더 돋보이는 것은 절대 아니다. 言語란 상대방이 쉽게 理解 할 수 있는 것이 最大의 效果를 얻는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不然이면’ 하는 것 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 쉽고 理解가 빠르나 예외적으로는 구구한 우리말보다 간단한 漢字單語가 훨씬 理解가 빨리 가는 때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구태여 어려운 文字를 써서 자기의 身分을 높이려 하거나 어설픈 文章으로 人格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迅速化 時代이고 한글전용 시대인 오늘에 즈음하여 文字를 罷列한 식의 發言이 아니고 쉬운 우리 말을 使用하여 한글로 적어도 理解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보다 條理 있고 內容이 鮮明히 들어 날 수 있는 發言을 요구하고 싶다.

(國會 速記課)

속 기 의 노래

姜 駿 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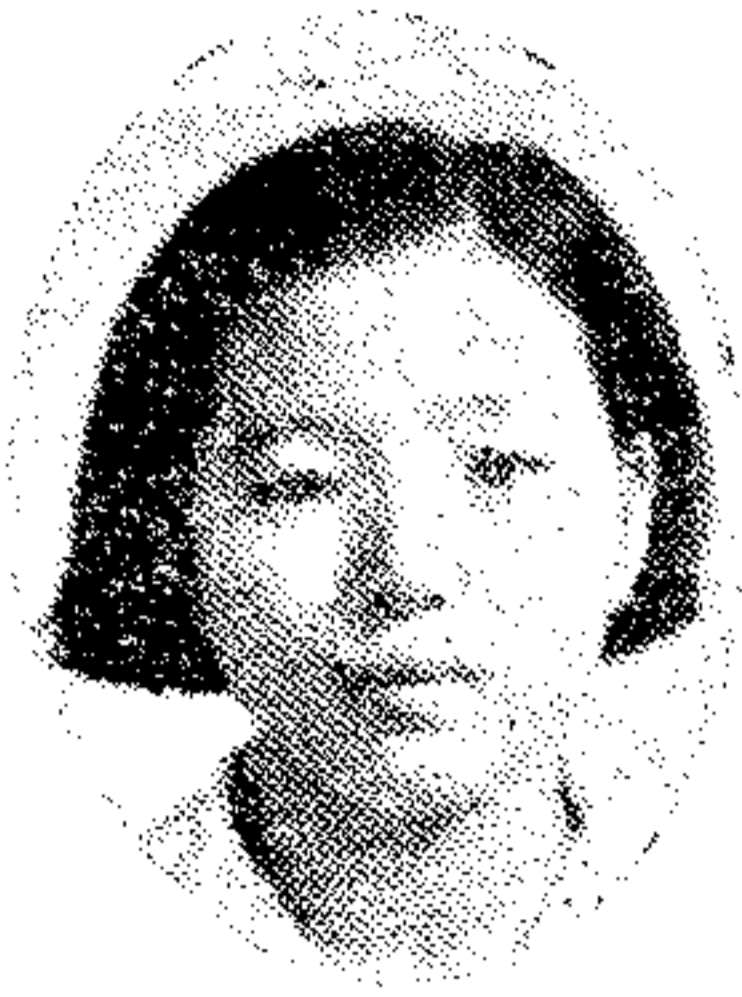
우리말 速記도 1909년 하와이에서 朴如日氏가 案을 「신한민보」에 發表, 이어 시카고에서 講義를 하였을 때로부터 61年 곧 還甲이 되었다.

오랜 沈滯期를 겪은 速言界도 그 中興期를 바라보아 그것이 文化技術임의 存在를 아로세기고 學習者의 唱喁과 더불어 「손다루기」의 口頭禪으로 삼고자 아래에 拙作 속기의 노래를 「速記界」를 빌어 獻歌한다.

1. 뚜렷한 얼 고운말씀 5천년이어 받아
 글 없으매 한글 지어 만만백성 꾀오시니
 모든 겨레 두루 써서 한글문화 으뜸이라
 누리 앞선 우리 글자 길이길이 사랑하세

2. 글 바르나 쓰기 더며 천신만고 하신 끝에
 날린 글씨 새로 지어 슬슬살살 흐려쓰니
 무궁화야 동산위에 이제사 참글 얻어
 민주한국 보배되니 길이길이 자랑하세

속기를 배우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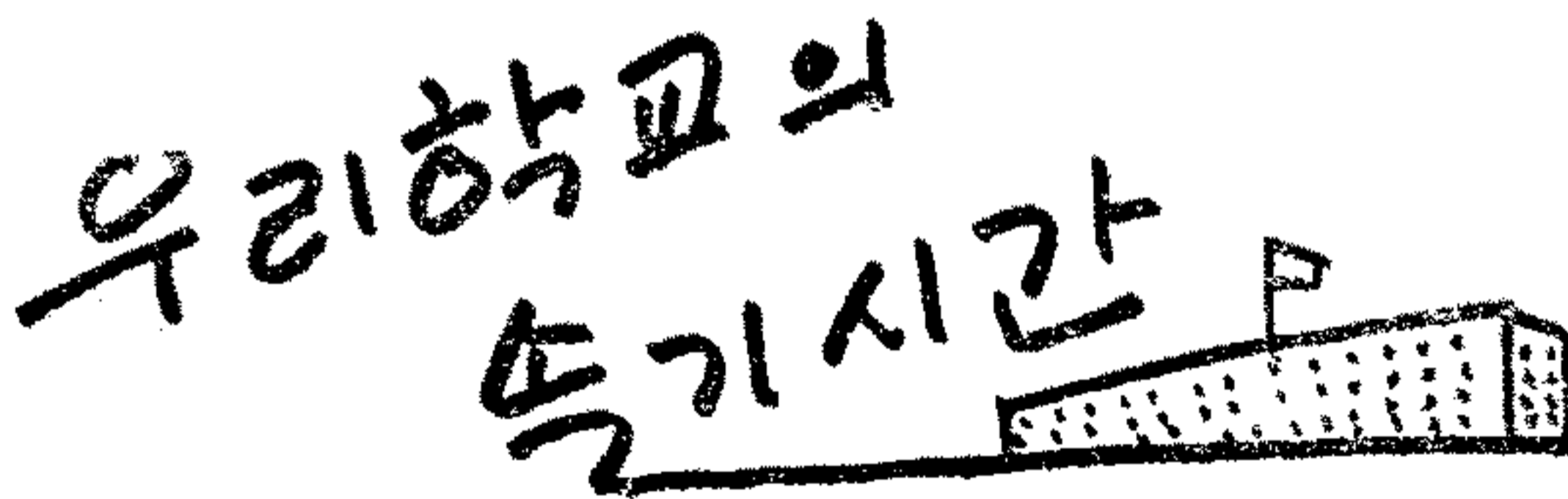


김 정 애

속기를 배우면서부터 나는 무척이나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게만 생각이 들었다.

신기하게도 이상한 것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하나의 까만점이, 낙서같이 쓰여진 길다란 선이 글자로 풀이해서 쓰여질 줄은 정말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맨 처음 “가”부터 시작한 내가 이제는 원만한 단어는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암만 생각해봐도 신기하였고 또 인간의 힘과 머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한다.

속기를 맨처음 배울때는 내가 남과 같이 잘 쓸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언제나 내 머리 위에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만한 자신이 생겼다. 내가 속기를 배우면서나 스스로 깨달은 점은 오직 하나뿐 그것은 노력을 하면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자신없이 호기심으로 이끌려 빠져 들어간 문속에서 나는 커다란 아주 웅장한 집을 발견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흥미거리라고 생각한 내가 이제는 아주 직업인양 취미가 붙었다. 이 취미가 내게서 영영 멀어지지 않는 것이지? (서울 상명여고 3학년)



김 정 숙

내가 속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벌써 계절을 하나 넘고 두번째의 계절의 문턱에 서 있다. 이렇게 많은 날을 지내오면서 내가 배우고 익힌 속기문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또 얼마큼 남은걸 하루가 지남에 따라 그만큼 더 배울건 물론이다. 맨처음 내가 생각했었던 속기와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속기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물론 “가” 하나도 모르던 그때와 지금의 내가 다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학기초엔 다 그렇듯이 새로운 설계와 욕망 타오르는 굳센 마음다짐. 모두가 훌륭하다. 그런 중에 속기라는 그림 비슷한 글자가 내 인식하에 접어들면서부터 내 내부속엔 속기를 안다 라는 자부심 비슷한 감정이 싹튼건 물론이다. 그때만 해도 막연히 할수 있을까? 하고 굶은 물음이 마음을 차지했었고 또 자신이 없었다. 나도 노력하면 될것 같다고 생각한전 한참 지난 뒤에야였다. 내가 생각하기엔 기본문자만 알아도 될테고 그것으로 만도 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자 한자가 자꾸 변할때마다 난 어리둥절해지고 그 문자가 어떻게 글자가 되어 나올까 알송 달송하여 짜증과 신기함에 두번째 계절의 문턱을 딛으며 이제도 내가 하는말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말.

(서울 상명여고 3학년)

Hansard

楊 澈 在

議會民主主義의 本産이요 民主政治史의 훌륭한 礎石을 드리운 英國이 數百年 동안 서서히 王權에서 民權(代議機關)으로의 權利鬭爭으로 因하여 허다한 苦難을 겪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여기 Hansard의 歷史를 살펴보아도 이와같은 事實을 더욱 數術해 주는 史實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英國에 있어 議會 會議錄을 Official Report라고 부르지만 通常 Hansard라고 하는 名稱이 더욱 많이 알려져 있다. 이는 1803년부터 議會速記錄(會議錄)을 一部 掲載한 「레지스터」紙를 發行하던 「토마스·캐존·헨서어드」에서 由來한 眞 歷史가 있기 때문이다. 卽 「토마스·캐존」은 「레지스터」紙를 Hansard라고 改稱하고 議會의 討議內容을 掲載하였던 것이다.

Hansard에는 Daily Report(日刊會議錄)와 Weekly Hansard(週刊會議錄)로 分類되어 上·下 兩院에서 各各 刊行되고 있다.

Hansard Society (「헨서어드」協會)는 1944年頃에 「코맨더 킹홀」(英國下院議員)氏에 의하여 再建된바 이 團體는 Hansard가 主軸이 되어 있고, 또 英國의 政治 및 立法活動에 대한 資料를 수집 研究編纂하는 學術團體로서 수백의 國會議員과 많은

學者들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Hansard의 始發부터 考察하고자 한다.

(1) Hansard의 歷史

A) 民間人發行으로서의 Hansard

1771年 以來 約 100年 동안은 討議內容의 秘密을 主張하는 議會와 이에 反해서 討議의 公開를 要求하는 世論으로서로 物議를 일으키던 時代였다.

점점 議會의 權限이 肥大해 갈수록 新聞과 一般輿論은 議會에 對하여 議事의 報道와 會議의 一般公開를 主張하였지만 議會는 過去에 王權의 奪取期間中 議會의 機密이 漏泄되어 王命에 의하여 投獄되었던 쓰라린 經驗으로 말미암아 會議의 公開를 꺼리는 習性이 남아서 처음에는 완강히 拒否하다가 輿論과 民心에 눌려 議會의 門을 열게 되었다. 議會의 門은 열렸지만 그래도 처음에 記者들은 一定한 記者席도 없이 議會의 구석에서 議員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記事取材를 하여야 했음으로 훌륭한 速記術과 勇氣가 없이는 엄두도 못낼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議會態度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현재에도 一般 사람들은 記者席에서 筆記하는 것이 禁止되어 있다. 그러다가 1803年 5月 14日 當時 「허버트」下院議長

의 주선으로 指定된 記者席이 마련되었다 이때의 記者들을 가리켜 英國國民들은 진실로 發表의 自由獲得에 基礎를 닦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해 그들 記者中の 한 사람인 「윌리엄·코에트」는 「폴리티칼·레지스터」新聞에 獨自적으로 議會記事에 註를 달고 各新聞記事를 綜合編輯하고 議員의 發言을 事實대로 실어 發行한 바 讀者들에게 大好評을 받았으며 이 一種의 議會報告書(會議錄)는 그 後로 8년이 지나는 동안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얼마 후 그는 「레지스터」紙의 印刷人인 T. C. Hansard에게 그의 權利를 讓渡하였으며 이로써 — 下院議事錄의 印刷人 또한 T. C. Hansard의 父親인 「루크·헨서이드」— Hansard家가 議會會議錄을 專擔하는 家門(Hansard Family)이 되었다. 이때부터 會議錄의 標題로서 Hansard가 登場하게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또한 以後 1889年 政府의 文書局에 이 Hansard 發行權이 引繼되기까지 約 80年間に 걸쳐 民間企業인 Hansard家에 의하여 議會會議錄(Hansard)이 發刊되어 왔다.

勿論 이것은 當初에 新聞으로서 出發하여 最高의 人氣를 끌었지만 점차 公文書의 性格으로 변모되어 事實의 報道에 力點을 두게 되자 權威는 지닌채 讀者로부터의 人氣는 下落되어 갔다. 그러나 議會는 이러한 Hansard家の 實績을 勘案하여 1813年 上下 兩院은 다음과 같은 決議를 보았다. 「議會의 Bar(發言席)나 委員會에서 必要할 경우 證據記錄을 作成하는 速記士를 任命할 수 있다」

이 決議에 의하여 「윌리엄·브라더·거니」氏가 任命되었지만 Hansard家の 所屬

도 아니며 議事擔當 公務員으로서 決議事項만 正確히 記錄하는 業務였다. (이 議事錄作成이 約 100年間 繼續되었는데 이때에도 會議錄은 Hansard家 發行의 Hansard가 代表된 것임은 勿論이다)

꾸준히 議會와 社會各層에서 認定을 받아온 速記士들에 대하여 上院은 1831年, 下院은 1835年 2月 9日에 드디어 記者席에서 分離하여 그들의 速記席을 마련해 주었다.

上院은 玉座뒤에, 下院은 議長席과 議員席中間에 各各 位置가 定해졌다.

—잠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 英國에 있어서 速記士는 議會出入記者의 身分으로서 新聞社에게 優待를 받고 있다는 點에대한 認識이다—

議會에 있어서 新聞의 位置가 確立되어 가고 讀者들의 눈이 議會에 쏠릴 수록 速記士의 記錄(記事)은 「블」을 이루어 速記士들이 여러 新聞에 原稿를 나누어 보내는 事態까지 빚어내게 되었다 實로 이들 速記士들은 議會記者中에서도 가장 좋은 職으로 認定받았다. Hansard家는 이때에 議會에 速記士 派遣없이 各新聞의 記事를 再編輯하여 定期로 月 2回 刊行하여 賣上을 올렸으나 1850年代에는 經營難으로 破産의 危機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1855年 議會와 大藏省에서 Hansard의 救濟에 協力하여 危機는 모면하였지만 新聞의 複寫版같은 內容에 대하여 문제가 提起되었으며 1878年에 議會에서는 議會의 報道문제의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討議한 結果 Hansard家에게 政府가 補助金을 주고 實際로 會議에 參席하여 記錄하는 速記士 1人을 고용시켜 Hansard를 發刊케 하는 代身 議會가 官公文書로서의 會議錄을 따로

成치 않기로 한 것이다. 이때부터 차츰 民間의 손에 의하여 刊行된 Hansard가 國家의 손으로 넘어가려는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1888년에 下院에서는 단순한新聞記事 以上の 正確성과 寫實性 있는 記錄을 要求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Hansard 家는 政府補助團體인 Hansard 印刷協會에 權限을 讓渡하였지만 이協會는 편집자의 不正으로 말미아마 이내 失敗破産하고 文書局의 調査로 一段落되어 이 협회는 「월휘르」씨에게 넘어갔다.

당시 이들의 속기업무를 살펴보면 6명의 Hansard staff(속기사)로서 하루 15분간 5회 속기하고번문은 익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 手筆번문으로서는 감당하기도저히 어려운 일이었음으로 自費로 「타이피스트」를 두기도 하고 신문記事에서 같은 내용이면 切取를 하기도 하였다. 대개의 경우 發言分量의 3分之以 2 以上을 記錄하는 程度로서 3週間마다 印刷하였으며 發言者의 訂正이 許容된 시기였다.

B) 政府發行으로서의 Hansard

1878年 以來 政府補助團體인 Hansard 印刷協會에 의하여 刊行되어오던 Hansard 에 대하여 4·5週刊마다 지연 出版되는데 대한 論議가 擡頭되어 1892년부터 1907년까지에 걸쳐 下院에서 이를 討議研究한 結果 議會會議錄은 政府가 刊行하여야 한다는 結論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1908年 5月 14日 當時의 財務相 「호브 하우스」씨는

- ① 下院의 公務員으로서 10人의 速記士와 監督者 1人을 들것
- ② 會議錄은 익일 午後 4時까지 配付할 것

③ 會議錄訂正은 內容의 문제에 限할것을 提案하여 決議를 보았다.

이로서 民間人으로서의 Hansard staff는 當堂히 official staff 即 下院公務員으로서의 資格으로 Hansard 를 作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新聞界와 方向을 달리한 첫巨步를 내디딘 것이다. 當時의 新聞報道記事는 短文으로서 산뜻하게 「스캐치한」 程度의 記事風이 流行하여 讀者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경향으로 말미아마 新聞記事와 會議錄間에는 이때부터 全然 判이한 편집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Hansard는 적어도 全文을 完全히 記錄하는데 使命을 갖게 되었다. 特記할 만한 點은 당시 「P. A 뉴스 에이젠시」紙의 議院出入記者인 「제임스·돛쇼우」氏가 速記長으로 任命되자 그는 속기사의 수를 12名으로 늘이고 타이피스트 2人을 5인으로 增員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速記士에 대한 認識——速記士는 公正하고 不偏不黨하다——을 남기게 한 사람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1915年 獨逸軍의 爆擊으로 Hansard의 歷史的 記錄이 모두 소실되어 1915年 以前의 會議錄은 保管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上院에 있어서는 1908년까지는 下院會議錄과 上院會議錄이 같이 실려졌었는데 1909年 會期初부터 따로 分離하여 회의록을 刊行하였다.

다만 1920年 2月 14日 文書局에 印刷出版이 引繼되기까지는 이 上院會議錄(亦是 Hansard)은 民間人의 손에 의하여 印刷되었다. (계속) <總務部長>

會 務 日 誌

70. 6. 30 會誌第2號 發刊
70. 7. 10 文化公報部에 아래와 같이 3/4分期國庫補助金申請
- ① 3/4분기 사업계획서 4부
 - 3/4분기 예산사용내역서 4부
 - 3/4분기 보조금 청구서 3부
 - ② 2/4분기 사업실적보고서 1부
 - 2/4분기 국고보조금정산서 1부
70. 7. 13 靑瓦臺에서 朴大統領 肖像畫製作許可를 得.
70. 7. 18 ① 3/4分期補助金指令書接受
- ② 第13次 理事會
- 가) 研究委員選任
- | | | | | | |
|---|---|---|-------------------|---|---|
| 楊 | 澈 | 在 | 梁 | 源 | 龍 |
| 李 | 康 | 賢 | 金 | 敬 | 萬 |
| 申 | 昌 | 秀 | (但 高麗法式 1名은 追後決定) | | |
70. 8. 3~8. 22 第7回 夏季無料速記講習實施
- 國語速記 446名
 - 英語速記 124名
70. 8. 11 3/4分期國庫補助金 250,000원收領
70. 9. 6 朴大統領, 李國會議長肖像畫展示裁可得.
70. 9. 7~9. 10 光復25周年紀念速記展示會開催
- 場所 國會議員 休憩室
 - 參觀人員 1141名
 - 院外展示 1970. 10. 1~10. 3까지 國立公報館에서 展示
70. 9. 14 第9次部長會議

〈總務部〉

속기 요금 안내

本協會에서는 速記料의 現實化를 위하여 지난 1967年 12月 1日 施行해오던 速記料. 金을 改正 引는 다음과 같이 施行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속기 요금 표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8,000 원	
좌 답 회	1 시 간	9,000 원	대 답 포 함
재 판 및 방송	1 시 간	10,000 원	
녹 음 재 생	1 시 간	8,000 원	
구 술	1 시 간	6,000 원	저술, 비서속기 등
외 국 어	1 시 간	15,000 원	영 어, 일 어

- 단, 1. 요지작성료 : 「속기료」외에 매 시간당 4,000원씩
가산함
2. 속 번 역료 : 「속기료」외에 매 시간당 3,000원씩
가산함

위와 같이 결정 시행함

1970년 3월 1일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編輯後記

- 「나는 빨리 죽어준 아버지때문에 자유를 얻었고 오랫동안 죽기를 기다리던 할아버지때문에 뽑내는 버릇을 얻게 되었다」는 <장·볼·샤르트르>의 自叙傳 告白과 같이 이제 겨우 세번 내는 速記界가 고삐없는 망아지 처럼 脫線하거나 그 나이 답지 않게 오만하지 않으려 하는데는 觀客이 없는 너무 쓸쓸한 舞台였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 아무튼 흉장난을 한다거나 落書를 하는 따위의 어린 시절의 자연적인 慾求 그 自體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흉장난이나 落書를 보고 기막혀 하는 어른이 적어도 한사람쯤 곁에 있어주어야만 할 것이 아냐는 데에 意義를 찾고 또 編輯者의 보람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編輯者 나름대로의 杼杼이다. 落書를 하더라도 拍手를 치는 共謀者가 없으면 興이 꺾인다. 여러분이 出産해주신 「速記界」이니 牛乳도 먹여주고 살찌게 해달라.
- 海外情報로 特別 寄稿를 해준 美上院 共和黨 院內總務 Hugh scott氏의 美國會速記士의 處遇情報는 앞으로 國會速記士 手當引上에 좋은 資料가 될것임에 이의 寄稿에 적극 支援를 해주신 崔致煥會長님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
- 國會速記實務의 元老 金鎮基氏의 「實務面을 通해본 韓國速記發展史」는 앞으로 계속 連載執筆할 것인바 解放後 수다한 速記法式 出現과 그 激動期를 거쳐온 우리 速記界에 한 가닥 正論을 體系化하는 것으로서 注目할만하다.
- 結實의 가을이다. 또한 國家 1年之計를 다루는 豫算國會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收穫의 結實이 맺기를 빈다. (源)

季刊 速記界

<第3號>

1970年 9月 30日 發行

發行人 崔 致 煥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

學院案內

☆ 創立23週年！

◇ 우리나라 唯一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1. 本科……………4個月
1. 研修科……………1年
1. 資格……………高卒以上

英文速記科

1. 本科……………3個月
1. 研修科……………1年
1. 資格……………高卒以上

修了後

國會，各官公署，各言論機關，各軍速記兵，外國人商社，留學時的筆記 및 알바이트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3) 1266

發

祝

展

首都女子師範大學

學 長	朱 英 夏
國文學科長	秦 東 赫
速記學講師	孫 弘 基

外 教 職 員 一 同

發

祝

展

法制司法委員會

行政室長 張昌鍾

外務委員會

行政室長 朴鍾逸

內務委員會

行政室長 李起春

財政經濟委員會

行政室長 金鍾仁

國防委員會

行政室長 金商天

文教公報委員會

行政室長 崔寅樹

農林委員會

行政室長 許 竣

商工委員會

行政室長 金宗洙

保健社會委員會

行政室長 張旭相

交通遞信委員會

行政室長 李漢鎔

建設委員會

行政室長 金 喆

國會運營委員會

行政室長 尹榮卓